

# 코로나19 관련 해외시장 주간 동향 보고

(2021.11.9. 기준)

## <중국>

- 중국 내 백신 접종 누적 23억 267.9만회(11.5)
-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 및 유입 현황(11.4)
  - 일일 신규 확진자 78명(해외유입 10명, 본토 감염 68명)
  - 고위험지역 3개(베이징 창핑구, 네이멍구 아라산명, 헤이룽장성 헤허시), 중위험지역 55개
- 상무부, 일상생활과 돌발 상황 대비 일정량의 생필품 비축 통지(11.1)
  - '2021 겨울 및 2022 봄 채소 등 생필품 공급 및 가정안정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지속적인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대비하여 강력한 규제 조치 채택·시행 중
- 중국 공정원, CGTN(중국국제방송국)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방역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내년 말부터 중국인들의 부분적인 해외여행 재개 가능할 것으로 전망(11.3)
- 총 23개 지역 123개 역에서 베이징 행 티켓 판매 잠정 중단(11.2~)
  - 11.8일~11.11일까지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기간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
- 2021 중국국제관광교역회(CITM) 및 여유국 스마트관광 포럼 등 11월 개최 예정 대형 박람회 및 행사 연기

## <대만·홍콩>

- (대만) 최근 2주간(10.26~11.8)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한 자리(0.07명) 지속 유지(해외 유입 인원 불 포함)
- (대만) 유럽연합 의회 '허위 정보·외세 간섭 특별위원회'(INGE) 대표단 13명, 외교버블 이용 대만 방문(11.3~11.5)
- (대만) CDC센터장, 일본 내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라 대만-일본 간 트래블 버블 추진을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발언(11.5)
- (대만) 대만-팔라우 트래블버블 항공편 4회차(11.3~11.13 기간) 연속 취소
  - (4.1~5.8) 총 12회(취소 2회 포함) 288명

- (8.14~11.6 확정치) 총 25회(취소 4회 포함) 1,900명
- (홍콩) 11.8일 지역감염 0건(누적 12,369건, 사망자 213명) 코로나 안정세
- (홍콩) 11.8일 기준 백신접종 1차 464만명(전체 69.0%), 2차 445만명(66.1%)
- (홍콩) 11.11일부터 3차 부스터샷 접종 계획 발표
  - 면역력 낮은 중증 환자, 60세 이상 고 연령, 감염 노출이 높은 방역 종사자, 의료관계자 등 우선순위로 시행하며, 우선순위 그룹은 약 186만 명 예상
- (홍콩) 정부, 중국 대륙-홍콩 간 국경이동 재개 위해 홍콩 내 방역 강화
  - 11.12일부터 일부 입국자 그룹 대상으로 적용하던 격리면제 제도 전면 철회, 홍콩 공항 해외 입국자 통로 중국·기타국가 구분 설치, 정부 건물 출입 시 'Leavehomesafe' 앱(방문객 추적 앱) 사용 의무화 등 방역 총력

## <일본>

- 정부, 비즈니스 트랙 입국제한 일부 완화(11.8~)
  - (요건) 비즈니스 관계자로 3개월 이내 단기 체류자 중 백신접종 2회 완료, PCR 검사 음성 확인, 초청 기업·단체의 행동 관리 필요. 입국 후 자가 격리 3일로 단축
    - \* 위 요건은 일본인 귀국자, 외국인 재입국자, 상용·취업 목적의 단기 체류자(3개월) 및 업무 소관부처에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도 적용
  - 유학생·기술 실습생 입국 가능. 단, 백신접종 완료자는 10일, 미접종자는 14일 격리 필요
  - 관광객 입국 재개는 일단 보류, 연내에 행동관리 실효성에 대한 검증실험 실시 예정
- 정부, 무증상자 대상 무료 PCR·항원검사 실시 방침 발표(11.12~)
  - 코로나19 제6차 대유행에 대응하여, PCR·항원 검사 무료 실시 및 경증 환자 전원의 대기시설 마련을 위한 지자체별 시설 준비 요청 예정
    - \* 현재까지 발열 증상자 및 밀접 접촉자의 경우, 의사나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PCR 검사 무료로 실시
- 3차 접종(부스터샷) 직장 단체접종도 인정할 방침(11.8)
  -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2회 접종 완료자 중 희망자 대상 3차 접종 실시
- 정부,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 정리 예정(11월 중순)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위드 코로나' 하에서의 사회·경제활동 재개를 중심으로 경제 대책을 결정할 방침, 연내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목표



- \* 사업자 대상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 연장(~'22.3월), 비정규·육아 세대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GO TO 트래블> 재개 및 <GO TO EAT> 연장 등의 내용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수 0명, 전국 감염자수 162명(11.7)
- 11.5일 기준, 전국 백신 접종인원 1회 접종자 98,487,718명(전체 77.8%), 2회 접종자 92,556,990명(73.1%)

## <동남아중동>

- (GCC) 쿠웨이트 정부, 11.6일부터 외국인 대상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 재개
- (싱가포르) 백신트래블레인(VTL) 시행 대상국 확대
  - 11.8일부로 호주, 스위스와의 VTL 실시. 11.1일부로 입국 신청 시작
  - 11.29일부로 말레이시아와의 VTL 실시.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싱가포르 창이 공항을 이용하는 방문객에 한정되며, 출국 전 PCR 테스트 음성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격리 면제
- (말레이시아) 호주와의 조속한 국경개방에 대해 협의(11.6)
  - 11.6일 개최된 말레이시아-호주 연례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국경개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여행재개를 결정할 것으로 표명
- (태국) 11.1~11.4일 간 태국 해외 입국자 수 한국, 7위\* 기록(11.5)
  - 11.5일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 브리핑에 따르면, 11.1~11.4일 간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9,210명으로, 이 중 11.4일 일일 입국객은 2,086명으로 △Test&Go\*\*(무격리 입국) 1,864명, △샌드박스 88명, △7일 격리 입국 32명, △10일 격리 입국 102명으로 집계
  - \* 동 기간 해외 입국자 수 상위 10개국 ①미국, ②독일, ③영국, ④일본, ⑤스위스, ⑥스웨덴, ⑦한국, ⑧네덜란드, ⑨UAE, ⑩중국 순
  - \*\* Test&Go : 11.1일부로 백신 접종 완료 입국객 대상 무격리 입국 국경개방 정책명
- (태국) 타일랜드패스(Thailand Pass) 신청 누적인원 65,338명 기록(11.4)
  - 이 중 12,607명 입국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11월 1주차 온라인 입국 허가서(COE, Certificate of Entry) 발급자도 약 13,000명으로 태국의 국가 재개방 정책 성공적으로 진행 중
- (UAE) 50번째 국경일 연휴(12.1~12.4) 기념행사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발표(11.2)
  -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거나 행사 96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 제출 시에만 참석 가능, 행사장 총 수용인원의 80%까지 입장 허용, 참석자 간 1.5



미터 사회적 거리 유지 등

- (싱가포르) 정부, 백신접종 기피 공무원 대상 무급휴가 방침 발표(11.4)
-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역, 경보단계시스템(Alert levels System) 2단계로 완화(11.5~11.21)
  - 실·내외 시설 수용인원 확대 및 미성년자의 쇼핑몰 방문 허용
  - \* 경보단계 시스템별 방역지침(식당·카페 수용 가능 비율(%))

구분	2단계	3단계	4단계
실내(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50%	30%	10%
실외(백신접종 여부 불문)	70%	50%	30%

- \*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1,591명(11.3 기준)으로 8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하였으며, 메트로 마닐라 지역 통행금지 해제(11.4)
- (베트남) 봉쇄완화 한달 만에 집합행사 금지 등 재강화 실시
  - 10.12일 일 확진자 2천명 대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11월 7천명 대로 급증. 이에 따라 봉쇄 완화 한달 만에 일부 지역에서 결혼식 등 집합행사 및 식당 내 취식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
- (몽골) 총리,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3차 예방 접종 촉구 및 전 공무원 대상 3차 접종 의무화 지시(11.2)
-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시, 쇼핑몰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의무화(11.8~)
- (터키) 보건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 달성을 위해 미 접종자 대상 접종 적극 권고(11.5)\*
  - \* 11.8일 기준, 터키 2차 접종 완료율 전 국민 대비 58.89%
- (인도네시아) 정부, 백신접종기술자문위(ITAGI)와 내년도 부스터 샷 접종 관련 검토 중(10.28)

**<구미대양주>**

- (호주·싱가포르) 양국 간 양방향 트래블버블 개시
  - [호주→싱가포르] 11.8일부터 호주에서 백신 접종 완료한 호주인의 싱가포르 입국 시, 격리면제
    - \* 싱가포르 백신 트래블 레인(Vaccine travel lane) 국가 중 하나로 호주 포함
  - [싱가포르→호주] 11.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싱가포르인의 싱가포르에서 호주\* 입국 시, 격리 면제
    - \* 11.8일 기준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 수도준주에 한하여 적용



- (미국) 하와이, 새로운 여행객 가이드라인 발표
  - 11.8일부터 해외여행객들의 미국여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와이 주정부, Safe Travel Program의 새로운 세부사항 발표
    - 해외 여행객의 하와이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및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테스트 음성 결과서 제출 의무
    - 해외에서 하와이로 들어오는 미국인은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미 접종자일 경우 24시간 이내 실시한 PCR 테스트 음성 결과서 제출 의무
    - 미국의 다른 주에서 하와이로 여행 오는 외국인도 국내여행자와 같이 분류되어 별도 증명 없이 하와이 여행 가능
-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테이크이션 세금공제 제도(Staycation Tax Credit) 신설
  - 내년에 도입되는 제도로 온타리오 주민들의 지역 내 관광을 장려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는 임시 프로그램
  - 숙박비(개인 숙박비 최대 1천불, 가족 최대 2천불)의 최대 20% 세금 환급 가능
- (독일) 인구 3분의 2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사망자 수 급증
  - 독일질병관리청(RKI)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감염자 수와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60세 이상 노인 중 300만 명의 백신 미 접종으로 인해 사망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예방접종위원회는 면역체계가 심하게 약화된 위험 환자, 요양 시설 입주자 및 관련 종사자,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 시설 직원, 안센 백신 접종자 등 위험군 대상으로 부스터샷 추가 접종 권장 중.
- (프랑스) 백신접종 완료 만 18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 보건증명서 발급 가능
  - 백신 접종 증명서 원본과 신분증 제시 후 안내된 지정약국에서 보건 증명서 발급 가능 \* 단, 프랑스 거주 유학생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함.
- (러시아) 러시아 2개 지역 출발, 비행기 탑승 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 11.23일부터 캄차카 지역의 모든 방향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 시 승객은 QR코드를 제시해야 하며 하바롭스크 지역에서는 12월부터 항공권 구매 시 QR코드를 제시해야 함
  - 해당 조치는 시외버스 노선에도 부분 적용 예정임
- (영국) 해외여행 회복세에 영국항공 대형기종 A380 재배치 등 동계 노선 대폭 확대 및 승무원 대규모 채용 개시



※ [참고]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 (외교부, 11.8 17시)

□ 총 185개 국가·지역

구분	국가·지역(수)
입국금지	48개국(전주대비 +1) * 중국 :기존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20.3.28~) 단, 취업, 유학,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 동일목적 비자신청 가능 ** 이 중 17개국은 백신 접종 조건부 입국 허용
격리조치	17개국(전주대비 -1)
검역강화 및 권고	120개국

\* 입국제한해제 : 4개 국가·지역

※ 참고자료

1.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2.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3. 각국의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현황
4. 한국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현황
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각 1부. 끝.

# 참고1 국가별 관광재개 현황 (11.9 기준)

국가	내 용	
중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여행(단체 및 에어텔) 상품 판매 금지( '20.1.24)</li> <li>단, 산시(陝西)(3.16)·장쑤(3.23)·상하이(3.30)·산둥(3.31)·베이징(4.17)·광둥( '21.8.24) 등 지역 성·시 내 여행에 한해 순차적 여행 재개</li> <li>○ 감염병 관리 우수 지역의 성(省)간 단체상품 판매 및 운영 허가( '20.7.14)</li> <li>○ 중국대륙 주민의 마카오 입국 시 검역단계 하향조정 자가격리 면제( '20.7.14)</li> <li>○ 자국 내 저위험지역 이동제한조치 완화( '21.3.16)</li> </ul>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되었던 4인 초과 국내 단체여행 허용(4.29)</li> <li>- 투어 관계자 전원 백신접종 1차 완료 필요, LeaveHomeSafe 앱 사용 의무화, 여행일정 그린 예코투어 및 홍콩관광청 자유투어 프로그램 일정 진행 조건</li> </ul>
홍콩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도 백신 접종 시 무비자 입국 가능(~ '21.8.9)</li> <li>○ 홍콩-싱가포르 트래블버블 합의(2020.10.15)</li> <li>* 시설격리·자가격리 해제. 여행목적이나 일정에 제한 없음</li> <li>* 1차( '20.11.21), 2차( '21.5.6) 모두 시행전 코로나 재확산으로 잠정 중단</li> <li>* '21.8.20(금) 홍콩-싱가포르 트래블버블 협의 중단 발표</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거주민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장기 의무격리 기간 필요(방한시 한국 14일, 홍콩 14-21일), 이에 따라 부득이한 목적 외 홍콩인 아웃바운드 수요 없음</li> <li>* 저위험-중위험 국가에서 입국시 : 14일 호텔격리(백신접종 무관)</li> <li>*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시 : 21일 호텔격리(백신접종 무관)</li> </ul>
대만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관광) 5.27-8.3, 관광산업 종사자(5만명) 방역수칙 준수 현장답사</li> <li>○ (안심관광) 7.1-10.31, 일반국민 대상 국내관광 바우처 지급</li> <li>○ 관광국, 국제관광 관련 예산(한화 400억원) 안심관광 지원금으로 추가 투입(8.28)</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관광객 유치) 거류중 미소지 외국인 입경 및 대만 경유 환승금지 ( '21.5.19 ~ 현재)</li> <li>○ 대만-필라우 트래블 버블 개시( '21.4.1 첫 단체 출발)</li> <li>○ 대만 내 전염병 경계등급 격상으로 트래블 버블 시행 일시 중지( '21.5.22-8.13)</li> <li>○ 대만-필라우 트래블 버블 재개( '21.8.14)</li> </ul>
일본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관광활성화 「Go To 캠페인」 1조 6,794억엔 추경 예산 편성( '20.4.7)</li> <li>○ 관광청, 「Go to 트래블」 캠페인 7월 22일부터 개시</li> <li>* 제외되었던 도쿄, 정식대상으로 추가( '20.10.1~)</li> <li>○ 오사카부, 삿포로시 등 코로나-19 급증지역 「Go To 트래블」 캠페인 일시정지 기간 연장( '20.12.14)</li> <li>○ 「Go To 트래블」 캠페인 전국 일시정지 실시( '20.12.28~ '21.1.11)</li> <li>* 도쿄도( '20.12.18~), 나고야시(20.12.16~), 히로시마(20.12.24~)은 선행하여 정지 실시</li> <li>* 기구매건 취소 수수료 면제, 사업자 대상 여행 대금 50% 보상 방침</li> <li>○ 「Go To 이벤트」, 「Go To 상점가」 캠페인 일시중지(20.12.28~ '21.1.11)</li> <li>○ 비즈니스 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중단 조치 3.21일까지 연장( '21.2.2-3.21)</li> <li>○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따른 「Go To 트래블」 중단( '21.1.12~)</li> <li>○ 국토교통성, 「Go To 트래블」 캠페인 중지 연장( '21.6월-연말) 여부 검토 중</li> <li>○ 지자체 내 투어(마이크로 투어리즘) 지원( '21.4.)</li> <li>○ 도쿄도, 골든위크(4월말-5월초) 관광 자제 요청</li> <li>* 오키나와/홋카이도 등 골든위크 이후 확진자 수 대폭 증가</li> <li>* 일부 지자체 내, 현민 대상 현 내 관광 대상 할인캠페인 소폭 재개</li> <li>○ 수도권, 여름휴가 및 추석(8월 초-중순) 귀성 및 관광 자제 요청( '21.8.)</li> <li>○ 「Go To 트래블」 캠페인 재개를 위한 시범여행 실시( '21.10.)</li> <li>* 시범사업 결과 반영하여 '21.11월까지 캠페인 지침 발표 예정</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트랙, 입국제한 일부 완화( '21.11.8~)</li> <li>* 비즈니스 목적 3개월 이내 단기 체류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격리기간 3일로 완화</li> </ul>
태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각, 「We travel together」, 「Moral Support」 계획 발표( '20.7.1)</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 시행 첫날 190만 명의 국민이 온라인 등록( '20.7.17)</li> <li>○ 국내관광 진흥 프로그램 「We Travel Together」으로 호텔 객실 예약 수 360만개 도달( '20.7.21)</li> <li>○ 국내관광 진흥책 「We Travel Together」의 혜택 확대 방안 승인( '20.8.27)</li> <li>○ 관광청, 태국 거주 외국인(18만명) 여행 장려를 위해 1인당 500바트 지원( '20.9-11월) 준비</li> <li>○ 관광청, 타이항공-태국호텔협회-태국 여행사협회와 공동으로 국내여행 패키지 마련 및 외국인 대상 관광 보조금 제공 지원 계획( '20.10.30)</li> <li>○ 백신 접종 목표 달성할 경우 8월 국내 관광 재개 예정( '21.6.7)</li> <li>- 기존 We Travel Together(제3차) 및 Travel Around Thailand 프로젝트를 통하여 3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설정</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상황관리센터(CESA), 3단계 재개방 로드맵 승인('21.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4-6월] (14일 → 7일로 격리기간 단축)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객 4월부터 7일간 시설 격리 후 6개 관광지(푸켓, 크라비, 팜야, 수랏타니, 춘부리, 차양마이) 방문 가능</li> <li>- [2단계, 7-9월] '푸켓 관광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의해 7월부터 푸켓으로 입국하는 백신접종 해외 입국객 격리 면제. 단, 입국 후 7일간은 지정 지역 내에서만 이동 가능</li> <li>- [3단계, 10-12월] 4분기부터 푸켓 포함 10개주 대상 푸켓 모델 적용</li> <li>- [4단계, '22.1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인 관광객은 격리 없이 태국 내 여행 가능</li> </ul> </li> <li>○ 7일 격리 프로그램 적용 첫 번째 외국인 관광객 그룹(독일, 16명, 백신 접종 완료) 4.3일 타이항공을 통해 푸켓 도착</li> <li>○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 지원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정보센터(Entry Thailand) 개설('21.4.21)</li> <li>○ '푸켓샌드박스'에 따라 7개 항공사 7월부터 푸켓 직항편 운항 준비 착수('2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켓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통해 올 7.3일 미국발 첫 번째 단체 관광객이 푸켓에 도착할 예정. 동 프로젝트 시행 첫 3개월(7~9월)간 외국인 관광객 약 129,000명 유입 예상</li> <li>- 타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카타르항공, 엘알 이스라엘 항공, 브리티시 항공, 에어 프랑스 등</li> </ul> </li> <li>○ 총리, 120일 이내 태국 전역 개방 발표 ('21.6.17)</li> <li>○ 푸켓 샌드박스 프로젝트 실시 첫 날, 외국인 366명 입국('21.7.1)</li> <li>○ 후아힌, '후아힌 재충전(Hua Hin Recharge) 프로젝트'로 10.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격리 재개방 발표</li> <li>○ 동부 해안지역 및 북동부 지역 7개 주 대상 2차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개방 방안 검토('21.8.31)</li> <li>○ 보건부 지정 저위험국가발 백신 접종 완료 입국객 대상 무격리 입국 허용 추진('2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격리 입국 시행 시 21년 관광객 1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3,200억 바트 달성 예상</li> <li>- 내년도 최소 1,000만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li> </ul> </li> <li>○ '21.11.1일 방콕의 국제관광 재개 준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콕의 유명 관광지등에 방역관리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발열체크, 거리두기 안내 및 마스크 착용 당부 등 확산 대비 대응책을 마련함, 아울러 향후 매 주마다 상황을 점검하며 확산 상황을 관리할 예정</li> <li>-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은 수완니품 공항에 도착 직후 실시하는 PCR 검사 결과 확인 전 까지 최소 1박의 숙박시설 예약을 증명해야만, 공항에서 숙박시설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코로나-h9 검사 음성 결과 확인 시, 자유롭게 이동 가능</li> <li>- 방콕시장, 방콕의 국제관광 재개 시 1개월 내 30만 명의 관광객 유치 예상('21.10.26)</li> </ul> </li> <li>○ 외교부, 무격리 태국 입국 가능 출발지역 기존 46개에서 63개 지역으로 확대('21.10.30)</li> <li>○ '21.11.1일 국가개방 첫날, 국제선 여편 통해 외국인 약 5,300명 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윗타썩 태국관광청장은 관광 성수기에 국가개방이 실시된 만큼, 외국인 방문객이 서서히 증가하여 21년 11월~22년 3월까지 약 100만 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li> </ul> </li> <li>○ '21.11.4일 기준, 태일랜드패스(Thailand Pass) 신청 누적인원 65,338명 기록. 이 중 12,607명 입국 허가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영사국 자료에 따르면 11월 1주차 온라인 입국 허가서(COE, Certificate of Entry) 발급자 약 13,000명으로 태국의 국가 재개방 정책 성공적으로 진행</li> </ul> </li> </ul>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 관광청(STB), Enterprise Singapore 및 센토사개발조합과 9개월 동안 4천5백만 달러 규모의 국내관광활성화 캠페인 실시</li> <li>○ SingapoRediscoverers Vouchers(\$100) 배포계획 등 세부사항 발표('20.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상 국민에게 올 12월 배포 예정, 21년 6월까지 유효</li> </ul> </li> <li>○ '20.9.18일부터 싱가포르 관광지 수용인원의 허용범위 확대(25%→50%, 야외 행사의 경우 50명→250명 미만)</li> <li>○ 백신접종률 70% 돌파에 따라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시행('21.8.19~)</li> <li>○ 백신접종률 82% 돌파했으나 지역감염자 증가세 뚜렷함(7일 평균 400명)</li> <li>○ 지역감염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재 강화('21.9.27~11.21)</li> </ul>
싱가포르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비자 소지자 입국 중단(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5.7. 이전 입국 승인된 근로비자 소지자이더라도, 5.11(화)부터 잠정 싱가포르 입국 중단 및 입국시기 재조정 필요</li> <li>* 항만, 건설 등 필수 인프라 사업장 근로비자 소지자는 입국 가능</li> <li>- 가족동반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5.11(화)부터 잠정 입국 중단</li> </ul> </li> <li>○ 싱가포르-호주, 유학생 대상 트래블버블 시범운영 합의</li> <li>○ 근로비자 소지자 입국 재개('21.8.10)</li> <li>○ 한국 등 4개국 대상 비즈니스 출장자 입국 허용 검토(9월부터)</li> <li>○ 독일, 브루나이와 상호 백신여행통로(VTL) 협정 체결 상호 여행교류 재개('21.9.8)</li> <li>○ 한국 출발 입국객 격리기간 7일로 단축('21.9.9)</li> <li>○ 독일발 백신여행통로(VTL) 대상자 입국 개시('21.9.8~/1,412명)</li> <li>○ 싱가포르 입국객(7일 격리 대상)은 도착 PCR테스트(차이공항) 면제('21.10.26)</li> <li>○ 싱가포르-호주, 싱가포르-스위스 간 무격리 관광 상용여행 조치(VTL) 시행('21.11.8~)</li> <li>○ 한국-싱가포르 양국간 무격리 관광 상용여행 조치(VTL) 시행('21.11.15~)</li> </ul>



말레이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복단계의 이동제한명령(Recovery Movement Control Order, '20.6.10~8.31)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위험지역을 제외한 국내관광 전면 허용('20.6.7)</li> <li>○ 7월부터 테마파크/워터파크 영업 허가('20.6.30)</li> <li>○ 문화관광예술부, 국내여행활성화 캠페인 '큐티큐티 말레이시아' 실시 및 홍보 위한 5개 TV 광고 런칭('20.8.26)</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0일부터 말레이시아 프로 상용 및 공무 출장차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한 Green Lane 실시('20.7.15)</li> <li>○ 정부, 2021년 2분기까지 외래관광객 입국 금지 가능성 언급. 각국 코로나19 2~3차 팬데믹에 따라 Green Lane 도입 재검토</li> <li>○ 인도네시아와 Green Lane 협상 타결, 양국 관광객 상호 왕래 협의('21.2.6)</li> </ul>
베트남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etnamese People Travel in Vietnam 캠페인('20.6.1~연말) * 항공권, 호텔, 입장료 할인 등</li> <li>○ 하노이 시, "safe-friendly-quality-attractive" 캠페인 추진</li> <li>○ 다낭 시, "Danang Thank you" 캠페인 추진</li> <li>○ 대부분 국내선 운항 재개('20.6.4)</li> <li>○ 철도청, 휴가철 탑승권 4,600장 50% 할인 판매('20.6.22~7.8)</li> <li>○ 베트남항공, 7.22일 이후로 국내선 총 61개 노선 운영 계획. 국내 관광활성화 일환으로 할인 프로모션 진행</li> <li>○ 베트남 호치민-다낭 국내선 항공 운항 재개('20.9.10)</li> <li>○ 베트남 항공 그룹, '21.3.28일부터 하노이 호찌민-꾸엔달랏 등 전국 15개 관광지를 연결하는 30여개의 국내 항공 노선 확대</li> <li>○ '21.8월 현재 하노이 호찌민 등 전국 대부분의 지방을 연결하는 국내 항공 노선 중단</li> <li>○ 3개월 만에 국내선 노선 (하노이-호찌민) 재개('21.10.10)</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입국 일시 중단</li> <li>- 호찌민 떠선년 국제공항 21년 6.14일까지 외국인 입국 중단</li> <li>○ 백신여권 시범지구로 지정된 푸꾸옥(Phu Quoc)섬 대상 트래블버블 추진 협의('21.8.4)</li> <li>○ 일부 국가와 국제선 운항 재개, * 단 특별 목적 입국만 허용</li> <li>- 미국('21.9월~), 대만 및 일본('21.11월~)</li> </ul>
캄보디아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4분기 내 백신 접종 완료 외래객 대상 인바운드 관광 재개 예정</li> <li>-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관광도 허용하여, 앙코르 사원 및 주요 관광지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검역 정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직 미결정</li> </ul>
인도네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여객운송 제한 완화 : 50% → 70%</li> <li>○ 호텔업계, '20.7월부터 운영재개 계획 발표</li> <li>○ 발리, 국내관광 허용(7월말) 계획 발표</li> <li>○ 2단계 국내관광객 개방 발표('20.7.31)</li> <li>○ 자카르타 주정부, 자카르타 진출입 시 신속항원검사 강제</li> <li>○ 자바 및 발리섬, '21.2.8일까지 지역 활동제한조치 시행</li> <li>○ '21.10.24(일) 0시부터 새로운 국내 이동 규정 적용</li> <li>- 항공이동 : 백신 접종 증명서(최소 1차) 및 48시간 내 실시한 PCR 음성 결과서 제시</li> <li>* 자바-발리 내 도시간 및 자바-발리 안팎 이동, Level 3-4 지역 이동 시 적용</li> <li>- 12세 미만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국립병원 소견서(백신 접종 불가 사유), 가족증명서 제시 및 PCR 검사 필요</li> <li>- 자바-발리 항공 이용시 PCR 검사 유효기간 48시간 → 72시간으로 공식 변경('21.10.27)</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17일 한-인니 비즈니스 출장 신속입국(Fast Track) 시행</li> <li>○ 싱가포르-인니 비땀빈담섬 한정 출입 허용하는 코로나 통로(Corona Corridor) 시행</li> <li>○ 외국인 대상 '21.2.8일까지 입국 금지 조치 시행</li> <li>○ 말레이시아와 Green Lane 협상 타결('21.2.6), 양국 관광객 상호 왕래 협의</li> <li>○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입국 시, 격리 14일 적용('21.6.7 기준) * 타 국가 5일 격리 유지</li> <li>○ 발리, 외래 관광객 대상 국경 재개방('21.10.14~)</li> </ul>
필리핀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6.2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세부퍼시픽)</li> <li>○ 필리핀섬 옐니도 국내관광 재개</li> <li>○ 국내선 항공 정상화를 위한 코로나19 항원 속성검사 의무화 채택 예정</li> <li>○ '20.10.1일 보라카이섬 국내관광 재개(72시간 내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li> <li>○ 지역사회 여행업 영업 재개 허용, 정원의 50% 이내 운영 가능</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2.26일부터 은퇴비자유화(2020.3.20 이전) 소지 외국인의 입국 허용 등 외국인 대상 필리핀 입국 금지조치 완화</li> <li>○ '21.4.21일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령 발표</li> </ul>
인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25일부터 국내선 운항 재개</li> <li>○ '20.7.6일부터 전국 주요 유적지(타지마할 제외) 재개방 발표</li> <li>○ 관광부장관, 국내여행 활성화에 집중할 정책을 펼칠 예정임을 발표('20.8.27)</li> <li>○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여행 제한 완화</li> <li>- 백신접종 완료 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제출 면제(세부, 보홀 등 11개 지역)</li> </ul>

	인바운드	○ '21.4.19일 기준 28개국과 에어버블 체결 *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UAE, 카타르, 몰디브, 일본, 바레인, 나이지리아, 이라크, 아프리카니스탄, 부탄, 케냐, 오만,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탄자니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네팔, 러시아, 세이셸,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아웃바운드	○ 인도인 관광객 허용 국가 현황 * 총 9개국('21.3.16 기준) : 몰디브, 러시아, 이집트, 케냐, 우크라이나, 바레인, 네팔, 터키
UAE	국내	○ 쇼핑몰, 관광지 등 정상 운영 * 단,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 MICE, 공연 등 행사 개최 가능 * 단, 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들로 제한
	인바운드	○ '20.7.7일부터 두바이 인바운드 관광 재개 *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 ○ '20.8.5일부터 한-UAE 간 신속 입국(Fast Track) 제도 시행 ○ '20.12.24일부터 아부다비 인바운드 관광 재개, 관광객 입국 허용 ○ 아부다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 국가(Green List) 업데이트, 한국 포함 총 28개국('21.6.18) ○ 바레인(5.10), 세이셸(5.13), 세르비아(5.15), 그리스(5.18)와 Travel Corridor 체결 * Travel Corridor 체결국 출발 입국자 중 백신접종 증명서 소지자, 격리 없이 여행 가능
	아웃바운드	○ 백신 접종 완료 UAE 국민(거주자), 구미주 등 주요 목적지로 자가격리 없는 해외여행 가능
쿠웨이트	아웃바운드	○ 정부, 9.1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모든 사회활동 해외여행 허용('21.8.3)
사우디 아라비아	인바운드	○ 입국 금지 조치 이후 17개월 만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해외관광객 입국 허용('21.8.1)
터키	국내	○ '20.5.28일부터 국내관광 재개 ○ 터키 내 14개 도시간 항공 운항 재개(6.18) 계획 발표('20.6.2) ○ 문화관광부, 7.1일부터 모든 관광시설 영업 재개('20.6.11)
	인바운드	○ 21년 6월 중순부터 국제관광 재개 ○ 유럽 6개국(6개 도시) 항공 운항 재개(6.18) 발표('20.6.2) ○ 97개국 36도시로부터 전세기 입항 시작(7월 1주차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전세기 탑승객 1만 명 입국) ○ 터키 안탈리아에 일 1만 명 외래관광객 도착('20.7.20) ○ 유럽 주요국가(영국, 독일 등) 터키를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 ○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정기 항공편 일시 중단('21. 5. 17 ~ ) ○ 여행 상수기 시즌(7~8월) 터키 주요 인바운드 여행지 '안탈리아 숙박시설 예약률 70% 달성
카자흐스탄	국내	○ 문화체육부, 카자흐스탄 정부는 'Kids Go Free' 프로젝트 범위 내 국내 TOP10 관광지 14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위해 무료 항공권 제공 관련 법률 개정사항 검토 중('21.3.16) ○ 보건부,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카자흐스탄 입국 금지 검토 중('21.3.31) ○ 문화체육부 산하 관광산업위원회, 5인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 1인 유치시 15,000 텡게의 여행사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21.6.21) ○ 카자흐스탄 민간 항공위원회, 2021년 상반기 카자흐스탄 항공 여객 수송 실적 발표 ('21.8.2) - 국내선 3,488,675명, 국제선 484,475명, 올해 말까지 여객 수송량 9,093,022명 예상 ○ 카자흐스탄 항공사 작년 대비 승객수 2배 증가 ( '21.8.18) * 2021년 7개월 결과 승객수 510만명 ○ 카자흐스탄 관광업계 직원 수 작년 대비 22.2% 감소, 7백명으로 기록('21.8.24) ○ 2021.1~6월 기간 내 스포츠, 문화, 관광 분야의 국가 예산은 작년 대비 2.6% 감액 (219.6bln KZT) ('21.8.27) ○ 카자흐스탄 수석 위생 의사의 새로운 명령서에 따르면 철도 운행 시, 문이 있는 객실 칸 이용만 가능하다고 발표('21.9.10.gov.kz)
	인바운드	○ 30개 국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정책 진행 가능성 및 러시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우즈베크, 독일, 몰디브, 한국, 폴란드 헝가리 등 16개국과의 항공 교통이 재개 및 증편 될 예정이라고 발표('21.9.22)
	아웃바운드	○ 카자흐 여행사, 터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터키 여행상품 판매 중지, 판매된 여행상품 일정 연장 검토('21.4.16) ○ 4.26일부터 카자흐스탄-터키 노선을 20회에서 9회로 감편('21.4.20) ○ 보건부, 최근 14일 이내 인도 방문자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하고,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했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21.5.4) ○ 카자흐스탄-몬테네그로 직항노선 주3회 운항 예정('21.6.21~) ○ 정부, 벨라루스, 터키, 우즈베키스탄 직항노선 증편 결정('21.6.7~) ○ 6.1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내-외국인 모두 키르기즈스탄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 '21.6.19일부터 카자흐스탄 국민,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 백신 여권 없이도 몬테네

		<p>그로 입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r Astana 항공사, 6.22일부터 PCR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 확인서 없이는 탑승 금지</li> <li>○ 6.22일부터 러시아터기 직항노선 개설, 카자흐스탄 터기 관광상품 단가 약 30% 증가 예상</li> <li>○ 헝가리, 카자흐스탄의 백신 여권(확인서) 인정</li> <li>○ 7월말, 카자흐 총리와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간의 협의 후 주 2회 빈도로 'Aktobe-Nukus' 노선에 새로운 항공 서비스를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간 주 32편의 항공편 운항 중</li> </ul> </li> <li>○ 투르키스탄* 국제공항 국제선(비슈켈, 이스탄불, 타슈켄트 등) 및 국내선 14개 노선 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르키스탄시는 최근 새롭게 관광지로 개발 중인 지역임</li> </ul> </li> <li>○ 카타르항공 도하-알마티 편 주 2회 운항 재시작, 30일 무비자 정책 재실행 예정('21.8.24)</li> <li>○ '21.8.31일부터 카자흐스탄 Aktobe - Uzbekistan Nukus 주 2회 항공 운항 시작</li> <li>○ 악토베-카잔(러시아) QazaqAir 주 1회 항공 운항이 시작 될 예정('21.9.22~)</li> <li>○ 알마티-도하 직항편 '21.11월부터 운항('21.9.24)</li> <li>○ 에어 이스타나 주 4회 카자흐스탄-몰디브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21.10.4~)</li> <li>○ 아부다비 정부, 검역 절차 없이 입국 가능한 그린 국가 리스트 80개국 발표('21.10.9)</li> <li>○ 카자흐스탄 관광객, 태국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발표('21.10.11~)</li> <li>○ 카자흐스탄-푸켓 직항 재개, 에어아스타나 주 2회 운항('21.10.31~)</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일본</b></p>	<p style="text-align: center;">인바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일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관련 조사 중</li> <li>○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해외입국자 대상 시설 격리 면제, 백신 접종 받지 않았을 경우 시설 격리 기간 7일('21.4.3)</li> <li>○ '21.6.1일부터 항공 노선 재개 관련 검토 중('21.5.27)</li> <li>○ '21.6.1일부터 국경 봉쇄 해제('21.6.1)</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아웃바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항공 재개 시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자만 출국 가능('21.4.8)</li> <li>○ 항공편 운항 재개 기간을 6월 초까지 연기 및 점진적 항공 정기편 재개 예정('21.5.5)</li> <li>○ '21.6.1일부터 국경 봉쇄 해제('21.6.1)</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미국</b></p>	<p style="text-align: center;">국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현대미술관 재개관(8.29)</li> <li>○ 미국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 국내여행 홍보캠페인 'Let's go there' 출범('20.9.8)</li> <li>○ 미 CDC, 크루즈 항해금지 명령 해제, 조건적 크루즈 운항 허용(10.31)</li> <li>○ 카니발·디즈니 크루즈 라인, 5월까지 모든 크루즈 운항 중단</li> <li>○ 미 CDC, 크루즈 터미널 및 선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2.2)</li> <li>○ 뉴욕시 식당 실내영업 재개(2.12~) * 최대 수용인원의 25% 제한,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li> <li>○ 뉴욕주 실내외 경기장·공연장 2.23일부터 제한적 입장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공연장·경기장은 최대 수용인원의 10%로 입장 제한</li> <li>- 경기, 공연 관람 72시간 내 검사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li> </ul> </li> <li>○ 뉴욕주 놀이공원 및 실내 가족 휴양시설 제한적 재개장('21.3.26)</li> <li>○ 하와이주, 주민 대상 섬간 이동을 위한 백신여권 도입(3월)</li> <li>○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메이저리그 야구장 및 디즈니랜드 재개 제한적 허용(4.1~)</li> <li>○ 뉴욕주, 4월부터 국내 이동 의무격리 해제</li> <li>○ 아루바 정부, 젯블루 항공 이용 입국 시 백신여권 도입('21.3.16~)</li> <li>○ 미 CDC,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국내여행 가능 발표('2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 완료 2주 후부터 국내여행 가능</li> </ul> </li> <li>○ 텍사스주, 주기관 등에 백신 여권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 시행</li> <li>○ 백악관 대변인, 미 연방정부 공인 백신여권 미발행 발표('21.4.6)</li> <li>○ 미 CDC, 백신 접종자 탑승 시 크루즈 운항 재개 조건 완화('21.4.28)</li> <li>○ CDC, 백신 접종자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가능 발표('21.5.13)</li> <li>○ 뉴욕 식당, 상점 등 실내외 인원제한 해제('21.5.19)</li> <li>○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백신여권 도입 검토 발표('21.5.28)</li> <li>○ 캘리포니아주 규제령 해제 및 경제 전면 재개('21.6.15)</li> <li>○ 뉴욕주 규제령 해제 및 경제 전면 재개('21.6.15)</li> <li>○ 셀레브리티 크루즈사 크루즈 운항 첫 재개('21.6.26)</li> <li>○ 뉴욕시 관광청, 뉴욕시 관광 홍보 TV 캠페인 개시('21.7.8)</li> <li>○ 시카고, 정상화 1달여 만에 여행주의보 재발령('21.7.16)</li> <li>○ 미 국무부, 영국 여행경보 최고 4단계 '여행금지' 격상</li> <li>○ 백악관, '국제여행 제한 당분간 유지' 발표('21.7.26)</li> <li>○ 뉴욕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식당 등 실내시설 이용 제한 발표</li> <li>○ 뉴욕시, 공립학교 교직원 백신접종 의무화('21.8.23)</li> <li>○ 교통안전청(TSA),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22.1.18)</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인바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6.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에서 2단계 '주의 강화(Exercise Increased Caution)' 로 하향 조정(11.23)</li> <li>○ '21.1.26일부터 미국행 여행객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 필수</li> <li>○ '21.1.25일 남아공·영국·아일랜드 등 26개국 입국 금지 지속 발표</li> <li>○ 미국 입국자 대상 자기격리 의무화 계획 발표( '21.1.21), 세부 지침 향후 발표 예정</li> <li>○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백신여권 도입 검토 발표( '21.5.28)</li> <li>○ 미 국무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최저 단계인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Exercise Normal Precautions)' 로 하향 조정( '21.6.8)</li> <li>○ 미 국무부, 프랑스·이스라엘·태국·아이슬란드·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스와티니·아루바 7개국을 4단계 여행금지에 추가( '21.8.9)</li> <li>○ 미 국무부, 캐나다 여행권고 3단계 '여행 재고' 로 격상( '21.8.31)</li> <li>○ 미 CDC,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및 괌 여행경보 4단계 '아주 높음' 으로 격상( '21.8.31)</li> <li>○ 11월부터 백신접종완료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외국인 입국 허용으로 여행제한 규정 변경안 발표( '21.9.20)</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부,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 '21.7.26)</li> </ul>
캐나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캐나다, 지역노선 수시개 운항 중지 발표</li> <li>○ 대서양 연안 4개 주로의 여행제한(업무, 의료, 생필품 조달 목적은 예외)</li> <li>○ 트래블버블(대서양 연안 4개 주) 방문 시 4개주 이외 지역에서의 방문자는 2주 격리. 4개 주 간에는 자유 이동</li> <li>○ 온타리오주, 이웃하는 타주(퀘벡, 마니토바주)와의 이동 재개 발표( '21.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목적 방문이 아닌 경우에도 육로 및 수로 경계 개방. 격리 불필요</li> </ul> </li> <li>○ 대서양 연안 4개주, 다른 주 거주 캐나다인에 대해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14일 자가 격리 의무시행( '21.7.25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자는 자기격리 면제조치 (단,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함.)</li> </ul> </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국경 폐쇄(외국인 입국 규제) 유지(' 20.3.18~)</li> <li>○ 캐나다-미국 육로국경 봉쇄(' 20.3.21~ '21.9.21) * 필수목적 국경통과로 제한(식품, 의약품, 기타 중요 품목 유통) * 미국인의 캐나다 입국은 허용( '21.8.9~)</li> <li>○ 모든 해외입국자(자국민 포함) 코로나19 증상여부 관계없이 14일 의무 자기격리(' 20.4.1~)</li> <li>○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기격리 계획 제공 필수(' 20.11.21~)</li> <li>○ 모든 입국자(자국민 포함, 5세 이상) 대상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 2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착 14일~90일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됨</li> </ul> </li> <li>○ 모든 입국자에 입국 시 PCR 테스트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 의무격리(3일), 검사결과 음성 시 자택 격리, 양성 시 정부지정 시설서 격리( '2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도착 시 PCR검사 후 격리 8일차에 PCR자가검사( '21.4.23~)</li> <li>* 기존 : 격리 10일차에 검사(도착 시 받은 검사키트 활용, 검사 후 연구소로 송부)</li> </ul> </li> <li>○ 4개 공항으로 국제선 운항 제한(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li> <li>○ 육로 입국자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21.2.15~)</li> <li>○ 인도발 항공기 입항금지(21.4.22~9.26), '21.9.27부터 운항 개시</li> <li>○ 캐나다 입국규제 완화 1단계시행( '21.7.5. 자정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접종완료자 3일 호텔 격리 포함 14일 격리면제, 도착 8일차 검사면제</li> <li>- 대상자 한정(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기존 입국 가능 일부대상자)</li> </ul> </li> <li>○ 21.8.9부터 캐나다-미국 국경 개방(백신접종완료 외국인 대상)( '21.7.19발표)</li> <li>○ 21.9.7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캐나다 국경 개방(백신접종완료자 대상)( '21.7.19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최소 14일전 화이자, 모더나, AZ 백신 2회 접종 완료, 안센백신 1회 접종완료</li> <li>- 공식 백신접종증명서(영, 불) 제시 및 ArriveCAN 포털 혹은 앱에 제시</li> <li>- 백신접종 완료자의 12세 미만 동반자녀에 대한 자기격리 면제</li> <li>- 백신접종 완료자 입국 시 코로나 검사 면제, 입국 8일째 중간 검사도 면제</li> <li>- 단, 백신접종 완료자 중 무작위 선별 코로나 검사 진행</li> <li>- 3일간 호텔격리 해제</li> <li>- 국제선 공항 5곳 운항 재개(헬리팩스, 퀘벡시티, 오타와, 워니펙, 애드먼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은 기존 운항</li> </ul> </li> <li>-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 14일 격리 적용</li> </ul> </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모든 비필수(non-essential)목적 해외여행 자제 권고(20.3.14~)</li> <li>○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크루즈여행 금지</li> <li>○ 하와이, 캐나다인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시 2주 격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11월 캐나다인 하와이 방문객 약 5천명</li> </ul> </li> <li>○ ' 20.1월~10월 해외여행 860만건 (' 19 동기 2,820만건 대비 69% 감소)</li> <li>○ 모든 Sun Destinations(멕시코와 모든 카리브해국) 여행금지 및 항공편 금지(1.31~4.30)</li> <li>○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인의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여권 도입 발표(21.8.11 발표, 가을 도입 계획)</li> <li>○ 21.11.8일부 캐나다인의 미국으로의 육로·해로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인 백신 교차 접종자(약 400만 명)도 입국 허용</li> </ul> </li> <li>○ 캐나다 여행주의보(Travel Advisory) 변경(21.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필수여행금지(Avoid non-essential travel) 해지 및 해외여행 최소 14일 전 백신 접종 완료 권고로 대체</li> <li>- 크루즈 관광 전면 금지(Avoid all cruise ship travel)는 유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주정부 백신증명서 디자인 표준화한 백신여권 공개(21.10.21)</li> <li>- 백신여권 없으면 21.11.30일부터 비행기 탑승 불가</li> </ul>
호주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별로 지역 간 (Interstate) 여행 허가 여부 수시 변동</li> <li>- 각 주별, 뉴시우스웨일즈주, 수도준주, 빅토리아주를 '감염위험지구' 로 지정 및 이동 금지</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뉴질랜드 간 쌍방향 여행안전지대(Travel Bubble) 현황</li> <li>- 2020.10.16.일부터 뉴질랜드&gt;호주 일방향 제한적 트래블버블 시행</li> <li>- 2021.4.19.부터 양방향 트래블버블 여행 시행</li> <li>· 양국 14일 이상 체류자의 경우 상호 방문 시 격리면제, 코로나19 백신접종 불필요</li> <li>· 콰타스, 젯스타 항공사 15개 노선 주 122회 운항 / 신규 노선 개설</li> <li>· 에어뉴질랜드 항공사 뉴질랜드 4개 도시-호주 8개 도시 간 15개 노선 운항</li> <li>- 호주발 뉴질랜드행 트래블 버블 중단 (21.7.24일부터 11월 중순 또는 말 재검토)</li> <li>- 뉴질랜드 북섬발 호주행 트래블 버블 중단 연장(8.19일부터 10.31일 호주 시간 오후 11:59까지)</li> <li>- 뉴질랜드발 호주행 일방향 트래블 버블 11월 1일부터 재개. 출발전 72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 호주식약청 승인된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접종완료 증명서 제출 의무</li> <li>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제출 의무</li> <li>○ 뉴질랜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3백만 달러 캠페인 'Be the First' 4~6월 중 시작.</li> <li>○ 해외로부터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 대상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21.1.22일부터)</li> <li>○ 뉴질랜드-쿡제도 간 트래블버블 운영 중</li> <li>- 쿡제도 주민이 뉴질랜드를 격리 없이 방문 가능(21.1.21~)</li> <li>- 쿡제도~뉴질랜드 간 쌍방향 여행안전지대 운영 중(21.5.17~)</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콰타스 항공사, 런던·로스앤젤레스 등 국제선 운항 재개(21.11.1~)</li> <li>- 11.1일 런던·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싱가포르(11.23), 델리(12.6), 밴쿠버(12.18), 도쿄(12.19), 호놀룰루(12.20), 요하네스버그(22.1.5), 푸켓(22.1.12), 방콕(22.1.14) 노선 운항 순차 재개 예정</li> <li>* 단, 백신 접종 완료 호주인,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에 한해 해외여행 가능</li> </ul>
독일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대응 인구 10만명 당 일주일간 신규확진자수 100명 이상시 야간통행금지, 접촉자수 제한 등 연방정부 차원의 비상브레이크 도입이 가능한 감염방지법 개정</li> <li>○ 코로나 백신 접종자 및 완치자 대상 일부 봉쇄조치 해제(5.8일부터)</li> <li>○ 바이에른주 5.21일부터 호텔 숙박업소 캠핑장 재개, 베를린 5.24일부터 일부 봉쇄 해제 등 일부 주 5월 중 봉쇄해제 시도</li> <li>○ 코로나19 대응 비상브레이크 6.30일 종료. 최근 7일간 신규 확진자 수에 따른 봉쇄 단계에 따라 봉쇄령 완화. 단, 실내 및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일부 방역 지침 의무</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일부터 2주간 통계에 의거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경고,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여행 주의 등 3단계로 발령</li> <li>*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단계 해당</li> <li>○ 2021.1.1.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모든 여행목적 체류 가능</li> <li>○ 변이 바이러스 위험지역 출발 운송 금지</li> <li>* 2주마다 코로나19 확진자수에 따라 지역별, 국가별 별도 발령</li> </ul>
프랑스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나 일부 제한조치 유지</li> <li>○ 6.26부터 오를리공항(국내 및 유럽노선 거점) 운영 재개</li> <li>○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li> <li>- (마르세유) ~8.31까지 4개 박물관 무료입장</li> <li>- (노르망디) 국내관광 신규 캠페인(#올 여름은 노르망디에서) 추진</li> <li>○ Hospitality 업계 일부(호텔, 레스토랑, 펍 등) 영업 재개(7.4~)</li> <li>○ 3차 봉쇄령으로 숙박업소 비즈니스 등 한정된 사유 외 판매 금지, 요식업 테이크아웃, 배달 외 업계 영업 금지(1.6~)</li> <li>○ 부분적인 국내여행 1차 재개(4.12) 후 5.17일 모든 국내여행 재개</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내) 출발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결과확인서 제출 의무</li> <li>○ (EU 역외) 1.31일부터 비유럽연합(EU) 국경 잠정 폐쇄 (지속)</li> <li>* 불가피한 직업상의 사유 또는 건강상의 사유 등 예외적 입국 시, 입국목적 확인서, 72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결과확인서(영문, 11세이상), 7일간 자발적 자가격리 및 7일 경과 후 PCR재검사 실시 동의 및 서약서 필수지참</li> <li>○ 한국 등 7개 국가* 대상 예외적 여행제한 완화(3.11~). 72시간 이내 음성결과 증명서 지참 시 입국 허용</li> <li>* 한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7개 국</li> <li>* 한국 등 상기 7개국은 코로나19 안전국가(Green List)로 지정, '20년에도 예외적 여행제한 완화(무비자 입국 유지 등)를 적용한 바 있음</li> <li>○ 정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영국 및 15개국 여행객 대상 입국 제한 (21.5.31~)</li> <li>- 자가격리 의무국가 : 영국, 북아일랜드, 바레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터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브라질, 칠레</li> <li>- 정부는 입국객 대상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나, 준수여부를 따로 관리하지는</li> </ul>

		<p>않음. 단, 자가격리 의무국가로 지정될 경우 격리장소를 당국에 신고해야하며, 불시 점검이 있을 수 있음 (위반 시 1천유로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31일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영국발 비필수 여행객 입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EU 회원국민, 프랑스 비자 소지자는 입국 가능하며 입국 전 PCR 테스트와 7일 자가격리 필요</li> </ul> </li> </ul>
영국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spitality 업계 일부(호텔, 레스토랑, 펍 등) 영업 재개(7.4~)</li> <li>○ 3차 봉쇄령으로 숙박업소 비즈니스 등 한정된 사유 외 판매 금지, 요식업 테이크아웃, 배달 외 업계 영업 금지( '21.1.6~)</li> <li>○ 부분적인 국내여행 1차 재개( '21.4.12) 후 5.17일 모든 국내여행 재개</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면제 대상 59개 지역 발표(7.10~) * 아웃바운드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 감염 발생상황에 따라 대상국가 변경 지속</li> </ul> </li> <li>○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 권고에서 67개 지역 해제(7.4~)</li> <li>○ 국내외 여행 금지(3차 봉쇄령/1.6~)</li> <li>○ 자가격리 면제 부여 제도(travel corridor) 긴급 중지(1.18~)</li> <li>○ 해외여행 일부 재개(5.17~) * 단, 정부지정 녹색국가(green list)에 한함</li> <li>○ 백신 2차 접종 14일 경과 후 황색 국가(amber list)를 방문했다가 입국하는 영국 거주민 자가격리 면제(7.19~)</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8일부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해외 여행객 입국 재개 발표에 따라 영국 항공업계도 수요 증가 대비 항공편 증편 실시</li> <li>○ JET2 항공, 10월 마지막 주 하프타임 방학 기간 연계, 스페인령 카나리제도 및 터키 등 주요 휴가 목적지 대상 증편</li> <li>○ 영국 공공보건서비스(NHS) 발급 백신여권, EU 내 공식 인정( '21.10.28~)</li> </ul>
러시아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6.1일부터 의료면허 소지 치료 목적 휴양소 영업 재개</li> <li>○ '20.7.1일 러시아 지역 간 국내관광 재개</li> <li>○ '20.12.15일까지 국내관광 활성화 캐시백 캠페인 시행</li> </ul>
	인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1일부터 국제선 일부 운항 재개</li> </ul>
	아웃바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스페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목적으로 러시아발 입국 금지</li> <li>○ 조건 충족 러시아 관광객, 터키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utnik V, Sputnik Light, EpiVacCorona, 및 KoviVak을 접종한 러시아 관광객의 터키 입국 허용. 영어로 작성된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필수.</li> <li>- 입국 전 코로나19에 걸린 관광객은 항체 존재 증명서 소지 시 입국 허용</li> <li>-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며, 항체도 없을 경우, 터키 입국 72시간 전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 포함 인증서 소지 시 입국 가능</li> </ul> </li> <li>○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러시아인, 격리 및 PCR 검사 없이 헝가리 입국 허용( '21.7.27~)</li> </ul>



## 참고2 국가별 항공/페리 동향 [11.9 기준]

### <한-중국>

#### □ 항공 동향 \* 민항국(民航局) 통지 의거, 2020.3.29부터 항공사별 1개 노선 외, 전 노선 운항중단

\* 중국 민항국(民航局)의 《5·1정책(항공사별 1개 국가, 1개 노선, 1주 1편 운항》(3.29~) 지속 하, 《제5차 국제항공편 조정(외국항공사의 중국 노선 조건부 운항 재개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6.8~)정책 발표에 의거, 한-중 양국 국제선 확대 합의에 따라 항공노선 운항

구분	항공사	운항노선	운항일자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KE)	인천-선양	매주 금요일
		인천-광저우	매주 수요일
		인천-톈진	매주 화요일
		인천-다롄	매주 금요일
	아시아나항공(OZ)	인천-창춘	매주 화요일
		인천-난징	매주 일요일( '21.10월 운휴) * 난징공항 국제선 전체 별도 청사 완공 후 재운항
		인천-청두	매주 목요일
	제주항공(7C)	인천-웨이하이	매주 수요일
		인천-하얼빈	매주 수요일
	진에어(LJ)	제주-시안	매주 목·토요일
	에어부산(BX)	인천-닝보	매주 일요일(운휴중, 연내 운항재개계획 없음)
		부산-칭다오	매주 목요일
	티웨이항공(TW)	대구-옌지	매주 목요일
		인천-우한	매주 수요일
		인천-지난	매주 금요일
	에어서울(RS)	인천-옌타이	매주 목요일
		인천-칭다오	매주 화요일
	중국 항공사	중국국제항공(CA)	인천-베이징
인천-다롄			매주 목요일(운휴 중)
인천-항저우			매주 화요일
중국남방항공(CZ)		인천-선양	매주 일요일
		인천-광저우	매주 목요일
중국동방항공(MU)		인천-상하이 푸둥	매주 금요일
		인천-옌타이	매월 1회( '21.11.11, 12.9)
샤먼항공(MF)		인천-샤먼	매주 월·토요일
산둥항공(SC)		인천-칭다오	매주 금요일 ( '21.10.22 금지 / 21.11.5 재개, 21.12.13 운항)
선전항공(ZH)		인천-선전	매주 수요일
칭다오항공(QW)	인천-칭다오	매주 토·일요일	
춘추항공(9C)	인천-상하이 푸둥	매주 월요일	

####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톈진	(진천선무)인천-톈진	여객운송 중지( '20.1.20~)
동북3성	(동방명주)인천-단둥	여객운송 중지( '20.1.28~, 화물수송은 지속)
	(범영훼리)인천-잉커우	여객운송 중지( '20.2.3~)(화물운송 지속)
	(대인훼리)인천-다롄항	여객운송 중지( '20.2.20~)(화물운송 지속)
산둥성	모든 노선	여객운송 중지 (화물 정상 운송)
장쑤성	(연운항훼리)인천-렌원강	여객운송 중지( '20.2.1~) (화물수송은 지속)



## <한-홍콩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	인천-홍콩 주 3회(수, 금, 일) 운항( '20.6.16-)
아시아나	운항	인천-홍콩 주 2회(수, 금) 운항( '20.3.24-)
티웨이	운항중단	인천-홍콩, 대구-홍콩, 제주-홍콩(기 중단-추후 공지시)
이스타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26-), 제주-홍콩( '20.3.3-)
에어부산	운항중단	김해-홍콩( '20.2.16-)
제주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18-), 제주-홍콩( '20.2.12-)
진에어	운항중단	인천-홍콩(기 중단-추후 공지시)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홍콩( '20.2.26-)
캐세이퍼시픽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1-)
캐세이드래곤	운항중단	제주-홍콩( '20.2.6-), 부산( '20.2.6-) * 캐세이드래곤 10.21 폐업
홍콩익스프레스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3-추후 공지시), 김해-홍콩( '20.3.3-추후 공지시)
홍콩에어라인	운항중단	인천-홍콩( '20.3.2-)

## <한-대만>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부산( '20.2.25~)
	운항	타오위안-인천(주3회, 화, 금, 일)
아시아나	운항중지	까오슝-인천(2020.2.26~), 타이중-인천(2020.2.26~)
	운항	타오위안-인천(주4회, 수/목/토/일)
진에어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화물기만 주2회 운항중)
제주항공	운항중지	까오슝-인천( '20.2.26~), 까오슝-제주( '20.2.25~), 타오위안-대구( '20.2.26~), 타오위안-무안( '20.2.24~), 타오위안-부산( '20.2.26~), 타오위안-인천( '20.2.26~), 타오위안-제주( '20.2.26~), 타오위안-청주( '20.2.17~), 까오슝-부산( '20.6.1~)
에어부산	운항중지	까오슝-부산( '20.2.25~), 까오슝-인천(운항취소), 타오위안-대구(운항취소)* 타오위안-부산( '20.2.17~)
이스타	운항중지	까오슝-인천( '20.2.26~), 송산-김포( '20.2.27~), 타오위안-인천( '20.2.26~), 타오위안-제주( '20.2.17~), 타오위안-청주( '20.2.19~), 화롄-인천( '20.2.18~), 타오위안-부산( '20.2.16~), 화롄-부산( '20.2.18~) ※ '20.9.4 이후 업데이트 없음
티웨이	운항중지	까오슝-부산( '20.2.21~), 까오슝-인천( '20.2.26~), 송산-김포( '20.2.27~), 타오위안-대구( '20.2.11~), 타이중-인천( '20.2.25~), 타이중-부산( '20.2.18~)
플라이강원	운항중지	타오위안-양양( '20.2.25~)
중화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 '21.8.1~), 타오위안-부산( '20.2.28~), 까오슝-인천( '20.2.28~), 송산-김포( '20.2.26~)
에바항공	운항중지	송산-김포( '20.2.26~), 타이중-인천( '20.2.27~), 까오슝-인천( '20.2.27~)
	운항	타오위안-인천(주 2회, 금, 일)
유니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2.26~)
타이거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대구(2020.2.25~), 타오위안-부산(2020.2.27~), 타오위안-제주(2020.2.25~), 타오위안-인천(2020.2.25~)
캐세이퍼시픽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2.10~)
타이항공	운항중지	타오위안-인천(2020.3.5~)
스쿠트항공	운항	타오위안-인천(주1회, 금)

### □ 크루즈 동향

지역	노선	내용
지룽	(프린세스)지룽-일본-한국-지룽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지룽	(코스타)지룽-한국-일본-지룽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 <한-몽골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몽골항공	특별기	인천-울란바토르 11회('21.11)
대한항공	특별기	인천-울란바토르 3회('21.11)
에어부산	운항중단	인천-울란바토르('20.2.25~'21.10 운항중단)
아시아나	특별기	인천-울란바토르 3회('21.11)

## <한-일본>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일본항공	운항중단	한일 전 노선 운항중단(~ '22.1.31)
대한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11.30)
	감편운항	나리타-인천(매일 1편 운항) 간사이-인천(~ '21.11.30, 주 2편(수, 목) 운항) 나고야-인천(~ '21.11.30, 주 2편(수, 토) 운항)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11.30)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나리타-인천(매일 1편 운항) 간사이-인천(~ '21.11.30, 주 3편(화, 금, 일) 운항) 후쿠오카-인천( '21.10.31~11.30, 주 1편(금) 운항)
	감편운항	나리타-인천(매일 1편 운항) 간사이-인천(~ '21.11.30, 주 3편(화, 금, 일) 운항) 후쿠오카-인천( '21.10.31~11.30, 주 1편(금) 운항)
에어서울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11.30)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11.30)
에어부산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2.3.26)
진에어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11.30)
	감편운항	후쿠오카-인천(~ '21.10.30, 주 1편(수) 운항)
피치항공	운항중단	일본 전 노선 운항중단(~ '21.11.30)
ZIPAIR	신규취항	나리타-인천 ( '20.10.16~, 주 3편(일, 화, 금) 운항)
제주항공	운항중단	하기 노선 외 운항중단(~ '21.11.30)
	감편운항	간사이-인천 (~ '21.11.30 주 1편(일) 운항)

###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일본	(비틀)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카메리아) 후쿠오카-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칸푸페리) 시모노세키-부산	당분간 운휴
일본	(팬스타) 오사카-부산	당분간 운휴

### □ 크루즈 동향

지역	노선	내용
지롱	(프린세스)지롱-일본-한국-지롱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지롱	(코스타)지롱-한국-일본-지롱	'21년 방한노선 운항계획 없음



## <한-태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주 7회) 운항 치앙마이-인천(주 2회/수, 일) 예정(2022.1.5.~2022.3.31.) * 전세기
아시아나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주 7회) 운항 치앙마이-인천(주 2회/수, 금) 예정(2021.12.22.~2022.3.2.) * 전세기
타이항공	부분운항	방콕-인천(TG656, 주 7회) 운항
제주항공	부분운항	치앙마이-방콕(주 1회/금) 운항(2021.11.5.~2022.3.25.) * 전세기 방콕-인천(주 7회) 예정(2021.12.22.~2022.3.27.)
진에어	부분운항	방콕-인천(주 7회) 예정(2021.12.1.~2022.3.26.)
티웨이	부분운항	방콕-인천(주 7회/수, 목, 토, 일) 예정(2021.12.15.~2022.3.31.)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금년 중 재개 계획 없음

## <한-싱가포르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4회(월/수/금/일)
아시아나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5회(화/수/금/토/일, 2021.11.15~)
제주항공	운항중단	싱가포르↔부산 노선 비운항
싱가포르항공	감편	싱가포르↔인천 주 6회
스쿠트항공	신설	싱가포르↔인천 주 1회 (월, ~ 2021.12) (VTL노선)

## <한-필리핀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마닐라→인천 주 7회 운항
아시아나	감편	마닐라→인천 주 7회 운항
제주항공	감편	마닐라-인천 주 1회(금)운항, 세부-인천 주 1회(금) 운항
필리핀항공	감편	마닐라→인천 주 2회(수, 목) 운항
세부퍼시픽	감편	마닐라→인천 주 3회(월, 목, 토) 운항
에어부산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이스타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플라이강원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진에어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팬퍼시픽항공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에어서울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전 한국-필리핀 노선 운항 중단(~미정)
델타항공	취항 연기	인천-마닐라(~미정)

## <한-말레이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KL 주 3회 운항 * 항공화물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수요가 주를 이룸
에어아시아	운항중단	인천-KL 잠정 운항 중단
말레이시아항공	운항중단	인천-KL 잠정 운항 중단

## <한-인도네시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가루다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2회 운항(화, 목)
인도네시아	운항중단	발리-인천 운항중단
대한항공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3회 운항(화, 금, 일) 발리-인천 운항 중단(~2021.8)
아시아나항공	감편	자카르타-인천 주 3회 운항(수, 금, 일)



## <한-베트남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주 3회 운항 인천-호치민 : 주 7회 운항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에어서울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아시아나	감편운항	인천-하노이 주 3회 운항 * 한국에서는 승객 없이 빈 항공기로 베트남에 입국하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승객 및 화물 운송
에어부산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티웨이항공	운항중단	호치민-인천 노선 주 2회 운항 재개( '20.7.22~)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진에어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제주항공	운항중단	인천-베트남 운항중단(~미정)
밤부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12월부터 주 1회 운항 예정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베트남항공	운항	인천-하노이 : 주 1회 운항 * 한국행 운항편만 승객 탑승 가능

## <한-인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 인디아	운항중단	델리-인천노선 주 4편(화, 토) (~미정)
대한항공	운항중단	뭄바이-인천노선(주 3회) → 뭄바이 지점 폐쇄 델리-인천노선 (~미정)

## <한-네팔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카트만두 운항중단(~2021.8)

## <한-UAE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두바이('20.3.5~)
에미레이트항공	부분재개	인천-두바이 주 7회('21.7월~)
에티하드항공	운항재개	인천-아부다비 주7회('20.6.10~)

\* '20.6.23일부터 목적 제한 없이 한국으로 여행(이동) 가능(단, 시증면제협정이 중단된 상태로 비자발급이 필요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단순 여행 목적으로는 입국 불가)

## <한-터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터키항공	운항재개	이스탄불-인천 주 3회 운항
대한항공	운항중단	이스탄불-인천(~'21.12월)
아시아나	운항중단	이스탄불-인천(~'21.12월)

\* 단,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 중단 상태로 별도 방문비자 발급 필요



### <한-카자흐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아스타나	감편운항	알마티-인천 주 2회(월,수) 운항
아시아나	감편운항	알마티-인천 주 1회(목) 운항

### <한-우즈베키스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우즈베키스탄 에어웨이	감편운항	타슈켄트-인천 주 2회(목, 일) 운항
아시아나	감편운항	타슈켄트-인천 주 1회(수) 운항
대한항공	감편운항	타슈켄트-인천 주 1회(수) 운항

### <한-영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런던-인천(주1회(금))(~21.12월)
아시아나	감편	런던-인천(주1회(토))(~21.12월)
영국항공	운항중단	런던-인천('20.4.11~2021년 하반기)

### <한-이탈리아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 '21.11.30) 인천-밀라노(~ '21.11.30)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로마(~ '21.11.30) 인천-베니스(~ '21.11.30)

### <한-핀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핀에어	감편	헬싱키-인천(~ '21.9 / 주4회(화,수,금,토)) * 21년 12월(주 7회) 증편 예정
	기타	헬싱키-부산 신규취항 연기('20.3.30→ 미정)

### <한-프랑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3회, ~ '21.11.30)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파리(~ '21.11.30)
에어프랑스	감편	인천-파리(주7회→주3회, ~ '21.11.30, 항공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한-스페인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인천-마드리드(~ '21.11.30) 인천-바르셀로나(~ '21.11.30)
아시아나항공	운항중단	인천-바르셀로나(~ '21.11.30, 항공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한-독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루프트한자	감편	민헨-인천 7월 중 주 2회, 8월부터 매일 운항 예정 프랑크푸르트-인천 7월 중 주 3회 감편운행, 8월 ~ 10월 주 5회 예정
아시아나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 '20.10.12~ ) 주 3회, 감편운행 연장
대한항공	감편	프랑크푸르트-인천( '20.7.1~ ) 주 2회, 감편운행 연장

### <한-폴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LOT	운항재개	바르샤바-인천( '20.7.3~ ) 주 4회(월,수,금,일)

### <한-캐나다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캐나다	감편	인천-밴쿠버: 주 5회 *월수목금토 (밴쿠버-인천 : 주 3회 *수목일)
	감편	인천-토론토: 주 3회 *화토일 (토론토-인천 : 주 3회 *월금토)
대한항공	감편	인천-밴쿠버 : 주 4회 *화목금일 (밴쿠버-인천 : 주 4회 *월목금일)
		인천-토론토 : 주 3회 *월수토 (토론토-인천 : 주 3회 *월수토)

### <한-네덜란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감편	인천-암스테르담( 주 7회 → 주 2회, ~ '21.11.30)
KLM	감편	인천-암스테르담( 주 7회 → 주 4회, ~ '21.11.30, 항공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한-호주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젯스타	운항중단	골드코스트-인천
대한항공	부정기운항	브리즈번-인천
		시드니-인천 2021년 11월 2회, 12월 매주 목요일 운항
아시아나항공	부정기운항	시드니-인천 2021년 11월 4회, 12월 9회 운항

### <한-뉴질랜드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에어뉴질랜드	부정기운항	오클랜드-인천 2021년 10~12월 중 월 1회
대한항공	부정기운항	오클랜드-인천 2021년 7월부터 매주 목요일 운항

### <한-미국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정상운행 (8)	인천-애틀랜타( 주 7회, 2021.10.31. ~11.30., KE035) ( 주 1회, 2021.11.02 ~11.30., KE5035) ( 주 3회, 2021.11.04 ~11.28., KE5035)
		인천-보스턴( 주 3회, 2021.10.31. ~11.28., KE091)
		인천-시카고( 주 3회, 2021.10.01. ~11.28., KE037)
		인천-댈러스( 주 3회, 2021.11.01. ~11.29., KE031) ( 주 1회, 2021.11.07. ~11.07., KE5031) ( 주 4회, 2021.11.08. ~11.29., KE5031) ( 주 1회, 2021.11.10. ~12.01., KE5031)
		인천-디트로이트( 주 2회, 2021.11.03. ~12.01., KE7273) ( 주 1회, 2021.11.05. ~11.26., KE7273) ( 주 1회, 2021.11.06. ~11.27., KE7273) ( 주 1회, 2021.11.08. ~11.29., KE7273)



		인천-호놀룰루(주1회, 2021.11.05. ~11.26.,KE7053) (주3회, 2021.11.03. ~12.01.,KE7895) 인천-LA(주7회, 2021.11.07. ~11.30.,KE011) (주5회, 2021.10.31. ~11.29.,KE017) 인천-뉴욕(주7회, 2021.10.31. ~11.30.,KE081) 인천-샌프란시스코(주5회, 2021.11.07. ~11.30.,KE025) 인천-시애틀(주3회, 2021.11.01. ~11.29.,KE019) (주3회, 2021.11.02. ~11.30.,KE5019) 인천-워싱턴(4회, 2021.10.31.~11.30.,KE7857)
아시아나	정상운행 (4)	인천-LA(주2회, 2021.11.10. ~11.27.,OZ202) (주7회, 2021.11.07. ~11.30.,OZ204) 인천-뉴욕(주7회, 2021.11.07. ~11.15.,OZ222) (주7회, 2021.11.17. ~11.22.,OZ222) (주7회, 2021.11.24. ~11.30.,OZ222) 인천-시애틀(주3회, 2021.11.07. ~11.28.,OZ272)
	증편 (1)	인천-샌프란시스코(주4회, 2021.11.07. ~11.30.,OZ212) (주1회, 2021.11.07. ~11.07.,OZ6614) (주2회, 2021.11.08. ~11.09.,OZ6614) (주1회, 2021.11.10. ~11.17.,OZ6614) (주7회, 2021.11.18. ~11.30.,OZ6614)
델타	정상운행 (9)	인천-애틀랜타(주1회, 2021.10.02. ~10.30.,DL026) (주3회, 2021.11.04. ~11.28.,DL026) (주7회, 2021.10.31. ~11.30.,DL7851) 인천-보스턴(주3회, 2021.10.31. ~11.28.,DL7667) 인천-시카고(주3회, 2021.10.31. ~11.28.,DL7863) 인천-댈러스(주3회, 2021.11.01. ~11.29.,DL7869) 인천-디트로이트(주2회, 2021.11.03. ~12.01.,DL158) (주1회, 2021.11.05. ~11.26.,DL158) (주1회, 2021.11.06. ~11.27.,DL158) (주1회, 2021.11.08. ~11.29.,DL158) 인천-LA(주7회, 2021.11.07. ~11.30.,DL9042) (주5회, 2021.10.31. ~11.29.,DL9044) 인천-뉴욕(주7회, 2021.10.31. ~11.30.,DL9015) 인천-샌프란시스코(주5회, 2021.11.07. ~11.30.,DL7891) 인천-시애틀(주3회, 2021.11.02. ~11.30.,DL196) (주3회, 2021.11.01. ~11.29.,DL9010) 인천-워싱턴(주4회, 2021.10.31.~11.30.,DL7857)
	증편 (1)	인천-호놀룰루(주1회, 2021.11.05. ~11.26.,DL7939)
유나이티드	정상운행 (4)	인천-LA(주2회, 2021.11.10. ~11.27.,UA7285) (주7회, 2021.11.07. ~11.30.,UA7287) 인천-뉴욕(주7회, 2021.11.07. ~11.15.,UA7293) (주7회, 2021.11.17. ~11.22.,UA7293) (주7회, 2021.11.24. ~11.30.,UA7293) 인천-시애틀(주3회, 2021.11.07. ~11.28.,UA7291)
	증편 (1)	인천-샌프란시스코(주4회, 2021.11.07. ~11.30.,UA7298) (주1회, 2021.11.07. ~11.07.,UA892) (주2회, 2021.11.08. ~11.09.,UA892) (주1회, 2021.11.10. ~11.17.,UA892) (주7회, 2021.11.18. ~11.30.,UA892)
아메리칸	정상운행 (1)	인천-댈러스(주1회, 2021.11.07. ~11.07.,AA280) (주4회, 2021.11.08. ~11.29.,AA280) (주1회, 2021.11.10. ~12.01.,AA280)
하와이안	증편 (1)	인천-호놀룰루(주3회, 2021.11.03. ~12.01.,HA460) (주1회, 2021.11.05. ~11.26.,HA6019)

\* 대한항공 : 미국노선 전편 발열 체크 의무화 및 추가 기내 방역 강화

## <한-사이판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아시아나항공	운항재개	인천-사이판(주 1회, '21.7.24~)
티웨이항공	운항재개	인천-사이판(주 1회, '21.7.29~)



## <한-러시아>

### □ 항공 동향

항공사	조치	내용
대한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모스크바-인천( '20.3.5~)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10.9~) * 12.4일부터 매주 금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오로라항공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9.16~) : 주 7회 운항 하바롭스크-인천( '20.9.17~) : 주 7회 운항 유즈노사할린스크-인천( '20.9.16~) : 주 7회 운항 * 8.1일부터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으나 현재 연말까지 운항 일정 취소
S7항공	운항중단	노보시비르스크-인천( '20.9.2~) : 주 2회 운항(수, 토)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이르쿠츠크-인천( '20.3.1~)
야쿠티야항공	운항중단	야쿠츠크-인천( '20.3.1~)
제주항공	운항중단	블라디보스톡-인천( '20.3.1~)
에어부산		블라디보스톡-부산( '20.2.26~)
아에로플로트	운항재개	모스크바-인천( '20.10.1~) * 12.3일부터 매주 목요일 1회 운항(기존 격주 1회에서 주 1회로 증편)

### □ 페리 동향

지역	노선	내용
블라디보스톡	동해-블라디보스톡	동계 정기휴향 기간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기한 연장 (당초 휴향 예정 기간 : 2019년12월 ~ 2020년 3월초)

### 참고3

## 한국 여행 금지·자제 관련 조치 [해외지사 동향보고, 11.9]

### □ 총 29개국

No	구분	국가	관리 조치
1	중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일부국가·미국·이란·한국 등 코로나19 고위험 15개국 대상 자국민 여행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20.3.17)</li> <li>▶ 중국민 해외여행 자제 경보 발령(중국 외교부, '20.4.21)</li> </ul>
2	비중국 중화권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지역으로 격상(홍콩 보안국, '20.2.25)</li> <li>▶ 해외 모든 지역 적색경고(여행계획조정, 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홍콩 보안국, '20.3.17)</li> <li>▶ 해외지역 코로나 위험도에 따라 국가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국가(Group A) :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등 22개국</li> <li>- 중위험국가(Group B) : 고·저위험국가, 중국·마카오·대만 외 전체, 한국포함</li> <li>- 저위험국가(Group C) : 뉴질랜드</li> </ul> </li> </ul>
3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4단계(방문부적합, 최대한 빠른 철수) 발령(대만 외교부, '20.3.19)</li> <li>▶ 해외 모든 지역 여행 적색경보 발령(대만 외교부, '20.3.21)</li> </ul>
4		마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마카오 위생국, '20.2.23)</li> <li>* 고위험지역 방문객 대상 별도 지정장소에서 검역 강화</li> <li>▶ 한국 2단계 여행경보(불필요한 여행자제) 발령(마카오 여행위기관리국, '20.2.25)</li> <li>▶ 해외 모든 지역 2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 여행경보 발령(마카오 여행위기관리국, '20.3.19)</li> </ul>
5	일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류자격 보유자에 한해 일본 재입국 허용('20.9.1)</li> <li>* (PCR) 출국전 검사증, (대사관 발급) 재입국확인서 지참 조건</li> <li>▶ 중장기 체류 대상 외국인, 일본 신규 입국 허용('20.10.1~)</li> <li>* 출국 전 PCR 검사 음성,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 조치 확약이 가능한 기업, 단체 대상, 입국자 수 한정 조건</li> <li>▶ 양국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20.10.8)</li> <li>* 단기출장자용 '비즈니스 트랙' 과 장기체류자용 '레지던스 트랙' 으로 운영, 비즈니스 트랙의 경우 PCR검사 음성확인증 제시 등 조건충족시 14일 격리조치 면제</li> <li>▶ 대한민국 전역 감염증위험정보 레벨3에서 레벨2(불요불급의 방문) 격하('20.10.30)</li> <li>▶ 영국발 변종 유입 우려로 전세계 대상 신규 외국인 입국 재금지</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개('21.1.14~2.7)</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연장('21.2.8~3.7)</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연장('21.3.8~3.21)</li> <li>▶ 비즈니스트랙 포함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 금지책 재연장('21.3월~)</li> <li>▶ <b>비즈니스트랙 일부 입국제한 완화('21.11.8~)</b></li> </ul>
6	아시아 중동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정부 공무원 대상 한국을 포함한 주요 위험국가 공무 여행 금지 발표(태국 내무부, '20.3.1)</li> </ul>
7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해외여행 자제(싱가포르 보건부, '20.3.18)</li> <li>▶ 한국·독일·말레이시아 대상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는 Fast lane 제도 3개월 중단 발표('21.1.30)</li> <li>* 신속통로제도와는 별도로 한국 입국 시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li> </ul>
8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18~3.31 이동 제한 명령으로 해외여행 금지(말레이시아 총리실, '20.3.16)</li> <li>▶ 20.8.31까지 이동 제한 명령 5차 연장(말레이시아 총리실, '20.6.7)</li> <li>▶ 국경봉쇄 지속 실시(싱가포르 국경에서 400명/주 한도 내에서 사전허가에 의한 출퇴근만 허용)</li> <li>▶ '21.3.5일부터 KL, 셀랑고르 등 수도권 조건부이동금지령으로 단계 하향, 회복 이동금지령 지역 간 관광객 방문은 허용하되 반드시 여행사 상품을 통해서 함</li> <li>▶ (21.3.30) KL, 셀랑고르 등 수도권 조건부이동금지령 5.20일까지 연장 발표</li> <li>▶ (21.5.10) 전면이동금지령 전국 확대('21.5.12~ '21.6.7)</li> <li>▶ ('21.5.22) 전면이동금지령 방역지침 강화('21.5.25~ '21.6.7)</li> <li>▶ (21.5.28) 6.1~6.14 3차 완전 봉쇄조치 시행</li> <li>▶ (21.6.12) 3차 완전봉쇄조치(Full Lockdown) 기간 연장 발표('21.6.1~6.28)</li> <li>▶ (21.7.2) KL·셀랑고르 외 8개 지역 강화이동금지명령시행(KL, 7.3~7.16)</li> <li>▶ (21.7.16) KL·셀랑고르 외 8개 지역 강화이동금지명령 종료, 풀락다운으로 1단계 하향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8.26) KL ·셀랑고르 등, 전면이동금지명령(FMCO) 지역에서 백신접종완료자 제한 완화 (10KM 이동 금지 해제, 차량 탑승인원 완화, 식당/카페 출입허용 등), 영업 가능 업종 추가(가전·의류 등 비접촉 상품 판매 업종 운영 허용)</li> <li>▶ (21.9.10) KL ·셀랑고르 등, 이동금지명령 단계 완화(국가재건계획 2단계 적용), 극장, 공연장 등 운영재개(업종별 입장인원 제한 30-50%), 관광업종 사무실 출근 허용(백신접종 완료자 중 최대 80%)</li> <li>▶ (21.9.23) 총리 10.1일 이후 전 직원 백신접종 완료 기업 정상운영 허용 발표</li> <li>▶ (21.10.11) 총리 10.11일 이후 백신 접종자 국내/해외여행 허용 발표</li> </ul>
9		베트남	▶ 여행자제 국가로 한국 지정(베트남 총리, '20.2.21)
10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여행 연기·자제 및 방문금지 등 권고(인니 외교부, '20.2.24)</li> <li>▶ 전세계 지역에 대한 비필수적인 해외여행 제한 및 해외여행중인 자국민 조기 귀국 등 권고(인니 외교부, '20.3.17)</li> </ul>
11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17~4.13 루손섬 전체 봉쇄·격리 조치 시행(필리핀 대통령, '20.3.16)</li> <li>▶ 해외노동자, 외국인 제외 자국민 해외여행 금지(필리핀 외무부, '20.3.18)</li> </ul>
12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이탈리아, 이란 여행 자제 권고(인도 보건·가족복지부, '20.2.26)</li> <li>▶ 대구, 경북 방문 자제 권고(주한인도대사관 '20.2.24)</li> </ul>
13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이탈리아, 이라크-터키 출도착 항공 전면 중단(터키 보건부, '20.2.29)</li> <li>▶ 해외여행 자제 권고(터키 보건부, '20.3.11)</li> </ul>
14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저위험국가'로 분류, 목적제한 없이 여행 가능('20.6.23)</li> <li>* 단,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 잠정 중단 상태로 별도의 비자발급 필요(사실상 단순 관광 목적 입국 불가)</li> </ul>
15		카자흐스탄	▶ 한국 포함 감염 발생 27개국으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카자흐스탄 보건부, '20.2.6)
16		사우디아라비아	▶ 한국으로의 여행 제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20.3.9)
17		오만	▶ 자국민 해외 출국 금지(오만 최고위원회, '20.3.18)
18		이란	▶ 외무부 한국 여행 자제 권고(이란 외무부, '20.2.29)
19		쿠웨이트	▶ 2.7일부터 2주간 비시민권자에 대한 입국 중단, 국민 대상 비필수적 해외여행 금지 권고('21.2.7)
20		이스라엘	▶ 한국-이스라엘 항공 운항 중지, 한국여행 자제 권고(이스라엘 보건부, '20.2.23)
21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발생 국가 여행 자제 경고(환경관광부, '20.1.31)</li> <li>▶ 한국 코로나19 고위험지역(방문중지)으로 지정(국가비상대책위원회, '20.3.2)</li> <li>▶ 몽골 국경 봉쇄 해제 및 출입국 허용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협상 중(몽골외교부, '21.6.3)</li> <li>▶ 코로나19 변이 확진자 증가로 해외여행 자제 권고(보건부, '21.9.3)</li> </ul>
22	미주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61여개 국가 대상 4단계(여행금지)에서 3단계(여행재고)로 하향 조정(미 국무부, '20.6.8)</li> <li>▶ 한국 여행경보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Exercise Normal Precautions)'로 하향 조정(미 국무부, '20.6.8)</li> <li>▶ 한국 여행경보 2단계 '주의 강화(Exercise Increased Precautions)'로 상향 조정(미 국무부, '21.8.2)</li> <li>▶ 한국 여행경보 3단계 '여행재고(Reconsider Travel)'로 상향 조정(미 국무부, '21.10.12.)</li> </ul>
23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여행 권고사항('21.10.21 변경 권고)</li> <li>- 1단계 : 안전유의(Exercise normal security precautions)</li> <li>* 기존 발령했던 3단계(Avoid non-essential travel) 해제</li> </ul>
24	구주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1.1.부터 모든 여행 목적의 한국인 입국 허용</li> <li>▶ 모든 불필요한 해외 여행 경고(20.12.16)</li> <li>* 코로나-19 위험지역 대상 신호등제 도입을 통해 여행 위험, 경고, 주의 등 표시</li> </ul>
25		프랑스	▶ 한국 여행등급 1단계(정상)에서 3단계(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제 권고)로 격상(프랑스 외무부, '20.2.25)
26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불필요한 해외여행 금지 권고(영국 외무부, '20.3.17)</li> <li>▶ 해외여행중인 영국국민 즉시 귀국 권고(영국 외무부, '20.3.23)</li> <li>▶ 여행금지 권고 해제('20.7.4)</li> </ul>
27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여행자제 권고(러시아소비자보호감독청, 관광청, 외교부, '20.2.26)</li> <li>▶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 권고(러시아관광청, '20.2.27)</li> <li>▶ 모스크바 제외 항공운항 제한(러시아교통부, '20.3.1)</li> <li>▶ 국제항공노선 운항 전면중단(러시아연방항공청, '20.23.27)</li> <li>▶ 국제항공노선 일부 운항 재개('20.8.1)</li> <li>▶ 방한항공노선(모스크바-인천) 운항 재개('20.9.27)</li> </ul>
28		벨기에	▶ 꼭 필요하지 않은 한국 여행은 하지 말 것을 권고(벨기에 외무부, '20.3.2)
29	대양주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4단계) 경보 발령(호주 외교통상부, '20.4.1)</li> <li>▶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예외적 경우 제외 모든 해외 출국금지조치 발효(호주 외교통상부, '20.3.25)</li> </ul>

## 참고4      한국의 외국인 입국제한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9)

No	시행일	국가	관리 조치
1	'20. 2.4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인 및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전면 중지</li> </ul> </li> <li>▶ 특별입국절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작성</li> <li>- 입국장 검역과정에서 발열 검사 시행</li> <li>-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연락처 확인</li> <li>-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2주간 앱을 통해 상태 의무보고</li> </ul> </li> </ul>
		전세계	▶ 외국인 입국 자동심사 이용 중지
2	'20. 2.12	홍콩 · 마카오	▶ 특별입국절차 시행
3	'20. 3.9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중지</li> <li>▶ 일본 주재 모든 공관 발급 일본 국민에 대한 기존사증 효력 잠정 정지</li> <li>▶ 신규 비자발급 심사강화</li> <li>▶ 특별입국절차 시행</li> </ul>
4	'20. 3.12	이탈리아 · 이란	▶ 특별입국절차 시행
5	'20. 3.15	프랑스 · 독일 · 스페인 · 영국 · 네덜란드	▶ 특별입국절차 시행
6	'20. 3.19	전세계	▶ 특별입국절차 전세계 확대 시행
7	'20. 3.22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발 입국객 전원 대상 별도 지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li> <li>* 무증상자 외국인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li> <li>* 무증상 내국인 : 자가격리, 입국 후 3일 이내 관할보건소에서 검사</li> </ul>
8	'20. 3.27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발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li>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무증상자 : 14일간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실시</li> <li>▶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객 대상 입국조치 강화</li> <li>* 유증상자 :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무증상자 :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li>* 음성판정 시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 및 한국 내 체류 보장</li> </ul>
9	'20. 4.1	전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 입국자(내 · 외국인)는 14일 자가격리</li> <li>*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국역, 공익 목적 예외적 사유 제외)</li> </ul>
10	'20. 4.13	아 · 태 18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 지역 151곳 중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 · 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li> <li>▶ 4.5일까지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 · 복수사증 효력 잠정 정지. 이미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li> <li>▶ 단기취업(C-4), 취업 · 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li> </ul>
11	'20. 4.13	미국	▶ 미국발 입국자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 실시
12	'20. 7.13	방역강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서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li> <li>* 해당국가 발 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li> </ul>
13	'20. 7.20	방역강화 대상국	▶ 기존 방역강화 대상 4개 국가에 7.20일부터 2개 국가 추가
14	'20. 7.31	재입국 외국인 관리 필요 대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심사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파악, 입국 심사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할 경우(관내 고시원, 모텔 등) 시설격리</li> <li>▶ 난민 신청자 중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명 대상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조사하여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 결정할 예정</li> </ul>
15	'20.	특별 입국대상자	▶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7.31		관리인의 연락처 기재 의무화
16	'20. 8.3	방역강화 대상국 및 러시아 출항 선원	▶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실시
17	'20. 8.10	중국	▶ 후베이성 발급여권 입국제한 해지 ▶ 후베이성 관할 공관 발급 사증제한 해지 ▶ 14일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 입국제한 해지
18	'20. 8.17	전세계	▶ 8.17일 0시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한국정부의 방역조치 위반 시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부담
19	'20. 8.24	전세계	▶ 8.24일 0시부터 상대국가의 한국인 대상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정도 및 여부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해외유입 외국인 국적별 치료비 일부 또는 전액 부담 조치 - 126개국 중 58개국이 한국인 환자 대상 일부지원, 66개국이 전액지원 중(12월 기준)
20	'20. 9.30~ 10.4	전세계	▶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중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3일 이내 진단검사, 14일간 격리실시 등 특별입국절차와 해외입국자 별도 운송 계속 실시
21	'20. 12.23~ 21.1.7	영국, 남아공	▶ 검역강화 : 입국 시, 격리해제 전 검사, ▶ 영국발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 '12.23~' 21.1.21) ▶ 입국심사 강화 및 발열 기준 기존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
22	'21. 1.4	전세계	▶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공항입국자 1.8일부터, 항만입국자 1.15일부터) ▶ 해외입국자 시설 및 자가격리 관리 강화 및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23	21.1.4	영국, 남아공	▶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 중단, 격리면제서 발급 한시적 중단
24	21.1.12	영국, 남아공	▶ 영국·남아공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음성 확인까지 격리
25	21.1.12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3일 이내 및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26	21.1.18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진단검사 시기를 1일 이내(당초 3일)로 단축하여 변이 바이러스 감시·관리 강화
27	21.2.8	아프리카 전역	▶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외국인→내·외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28	21.2.11	전세계	▶ 모든 해외 입국자 PCR 검사 3회 실시 - 입국전(음성확인서) → 입국직후(시설 또는 자가격리 후 1일 이내) → 격리해제 전 ▶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특별관리 및 격리 강화(전수 1일실 격리)
29	21.2.11	변이바이러스 위험국	▶ 변이바이러스 점유율을 고려하여 방역 강화국 지정 및 주기적 조정. 항공편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 격리면제제도 원칙적 중단
30	21.5.4	인도	▶ 1주일간 시설격리 강화 (입국시) PCR 입국 확인서 제출 → (입국후) 7일간 시설격리(1일 내 진단검사+6일차 진단검사) → (자가이동 후) 7일간 자가격리(격리해제전 검사)
31	21.5.5	국내에서의 예방접종완료 입국자	▶ PCR 검사 음성, 무증상 등 조건 충족시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로 조정 능동감시 기간 중 총 2차례 PCR 검사 실시(6~7일차, 12~13일차),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등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철저히 준수,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 예정 ※ 단,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에서 입국시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 실시
32	21.5.11	인도	▶ (검사) PCR 검사 총 3회 실시 : 입국 직후(입시시설), 시설퇴소 전(입시시설), 격리해제 전(지자체) (격리) 7일 입시시설 + 7일 자가격리
33	21.7.4	인도네시아	▶ PCR 음성 확인서 미 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
34	21.7.5	국내에서의 예방접종완료자	▶ 입국 시 PCR 검사 실시 회수 단축 : [기준] 4회 → [변경] 2회 - 사전 음성 확인서 제출용 1회, 입국 후 6~7일차 1회
35	21.7.5	백신 미접종 입국자	▶ PCR 검사 실시 총 3회 : 입국 72시간 전 해외 현지에서 1회, 한국 입국 후 1일 내, 격리 해제 전 1회
36	21.7.5	예방접종확인서, 음성확인서 모두 미제출자	▶ 격리기간 단축 : [기준] 14일간 시설격리 → [변경] 7일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37	21.7.15	전세계	▶ 내국인 포함 모든 입국객에 대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음성확인서 미 소지시,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제한
38	21.7.28	모든	▶ PCR 검사 3차례 이상 실시 의무화

		외국인 유학생	- 입국 전 1차 검사 실시 후 음성 확인서 제출 -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장소 관할보건소에서 2차 검사 실시 - 14일 자가격리 종료 후 3차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
39	21.8.1	변이유행국 (26개)	▶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 *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40	21.8.27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 국내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출국 후 입국 시, PCR 검사 추가 1회 실시 -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신설), 입국 후 6-7일차(총 3회)
41	21.9.1	람다 변이유행국 (36개)	▶ 해외 예방 접종 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 면제 제외 *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리핀, 가나, 나미비아, 미얀마, 오만, 요르단,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파키스탄, 페루
42	21.9.10	페루 · 칠레	▶ 내국인 ·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시설격리조치 강화 -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7일간 시설격리(1일 내 진단검사+6일차 진단검사) - (자가이동 후) 7일간 자가격리(격리 해제 전 검사) * 단기 체류 외국인은 현행유지(14일 시설격리)
43	21.10.1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20개)	▶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44	21.10.7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 격리면제서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 ·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대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 국내 예방접종시스템(CooV)를 통해 접종 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 가능
45	21.11.1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16개)	▶ 해외예방접종 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21.9.1.일 시행) 사증면제 잠정 정지 국가·지역(63곳)

구분	사증면제협정국가	무사증입국 국가·지역
아태 (19)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호주,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사모아, 통가, 일본
미주 (23)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파나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
유럽 (6)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중동 (9)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6)	레소토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참고5**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11.9 기준)**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중화권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활용 외교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여 백신 지원 진행 중</li> <li>○ 자국 제약업체 시노팜 백신 국민 접종 중</li> <li>○ 자국 제약업체 시노백 백신 일반승인( '21.2.6)</li> <li>○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lt;코로나19 백신 접종 기술 가이드라인(제 1판) 발표&gt;( '21.3.29)</li> <li>○ 중국 내 백신 부스터샷 추진( '21.10.11)</li> <li>○ 중국 내 백신 누적 접종(1,2차 합계) <b>23억 267.9만 회</b>, 2차 접종 원료자<b>10억 9천만 명</b>( '21.11.5)</li> </ul>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정부 총 2,250만 회 분(홍콩인구 3배수)의 백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시노백, 미국 화이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각 750만 회 분량 백신 구매 계약완료</li> </ul> </li> <li>○ 코로나 백신 관련 윈스톱 웹사이트(<a href="https://www.covidvaccine.gov.hk/en/">https://www.covidvaccine.gov.hk/en/</a>) 운영</li> <li>○ 백신수급 및 접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노백 100만 회분, 화이자 백신 134만 회분 수급완료( '21.3.7일 기준)</li> <li>- 우선접종대상 370만 명 대상 접종시행( '21.2.2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염병 방지 관련 의료진 및 직원</li> <li>2) 60세 이상 노인층 (70세 이상 노인동반 보호자 최대 2명 접종가능)</li> <li>3) 노인 및 장애인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li> <li>4)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자</li> <li>5) 국경간 운송·이동 관련 종사자(운송트럭 운전자, 항공승무원, 선원 등)</li> <li>6) 식음료, 슈퍼마켓, 택배운송업, 대중교통 운송업, 건설업, 관광업 등</li> </ol> </li> <li>- 만 30세 이상 홍콩거주민으로 백신접종 대상 확대( '21.3.16-)</li> <li>- 포장결함으로 일시중단(3.24)되었던 화이자 백신 접종 재개( '21.4.5-)</li> <li>- 만 16세 이상 홍콩거주민으로 백신접종 대상 확대( '21.4.23-)</li> </ul> </li> <li>○ 29개 지역 커뮤니티 시설, 민간클리닉, 정부병원 의료시설, 요양병원 등 4개 채널에서 접종</li> <li>○ 정부 플랫폼 'iAM Smart+' (<a href="https://www.iamsmart.gov.hk/en/">https://www.iamsmart.gov.hk/en/</a>)에서 온라인 백신접종 예약 기능, 접종 후 디지털 증명서 발급 기능 등</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보상을 위한 HK\$ 10억 상당의 보상기금 조성</li> <li>○ 시노백 백신 3세~17세 대상 접종 긴급 승인( '21.6.5)</li> <li>○ <b>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 1차 464만명(69.0%), 2차 445만명(66.1%) 완료</b>( '21.11.8)</li> </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수급현황 : 실제 대만 도입량 3,038만 도스 (전체 대만 인구 129% 1회 접종량)</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BNT (화이자)</th> <th>아스트라 제네카</th> <th>모더나</th> <th>메디젠 (高端)</th> <th>총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정부-백신업체 계약 구매</td> <td>-</td> <td>712</td> <td>371</td> <td>344</td> <td>1,427</td> </tr> <tr> <td>COVAX</td> <td>-</td> <td>102</td> <td>-</td> <td>-</td> <td>102</td> </tr> <tr> <td>타국 정부 공여분</td> <td>-</td> <td>502</td> <td>403</td> <td>-</td> <td>905</td> </tr> <tr> <td>민간 기증분</td> <td>861</td> <td>-</td> <td>-</td> <td>-</td> <td>861</td> </tr> <tr> <td>합계</td> <td>861</td> <td>1,316</td> <td>774</td> <td>344</td> <td>3,29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현황 ('21.11.7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17,484,037명 (전국민 대비 74.50%)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메디젠, 화이자</li> <li>- (2차) 8,797,884명 (전국민 대비 37.49%) /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메디젠, 화이자</li> </ul> </li> </ul>	구분	BNT (화이자)	아스트라 제네카	모더나	메디젠 (高端)	총합계	정부-백신업체 계약 구매	-	712	371	344	1,427	COVAX	-	102	-	-	102	타국 정부 공여분	-	502	403	-	905	민간 기증분	861	-	-	-	861	합계	861	1,316	774	344	3,295
	구분	BNT (화이자)	아스트라 제네카	모더나	메디젠 (高端)	총합계																																
정부-백신업체 계약 구매	-	712	371	344	1,427																																	
COVAX	-	102	-	-	102																																	
타국 정부 공여분	-	502	403	-	905																																	
민간 기증분	861	-	-	-	861																																	
합계	861	1,316	774	344	3,295																																	
일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제스(DNA 백신) :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개시</li> <li>- 시오노기제약(유전자 재조합 백신) : 1-2차 임상시험 개시(12월)</li> <li>- 타케다약품공업(유전자 재조합 백신) : 미 노바백스의 제조기술 이전</li> <li>- KMB이오로직스 : 내년 1월 1·2차 임상시험 동시실시, 2023년 실용화 목표</li> <li>- 다이이치산쿄(mRNA 백신) : 내년 3월 임상시험개시 목표</li> </ul> </li> <li>○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총 856만회분/약 428만명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화이자 1억 9,400만회분(9,700만명분) / 6월 말까지 1억 회 이상 확보 예정</li> <li>- 미국 모더나 5천만 회분(2,500만명분) 승인 신청 중</li> <li>-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1억 2천만 회분(6,000만명분) 승인 신청 중</li> </ul> </li> <li>○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미화학(아비간) : 제조판매승인 신청(10.16)에 대해 승인보류 결정( '20.12.21)</li> </ul> </li> <li>○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 및 계획 발표( '21.2.16)</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접종순위</th> <th>대상자</th> <th>접종(예상)시기</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의료종사자 선행접종</td> <td>희망자 약 4만명</td> <td>'21.2.17~</td> </tr> <tr> <td>2</td> <td>의료종사자 우선접종</td> <td>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80만명</td> <td>'21.3.1~</td> </tr> <tr> <td>3</td> <td>고령자 우선접종</td> <td>65세 이상 3천6백만명</td> <td>'21.4.12~</td> </tr> <tr> <td>4</td> <td>기타</td> <td>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td> <td>-</td> </tr> </tbody> </table>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행접종	희망자 약 4만명	'21.2.17~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80만명	'21.3.1~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6백만명	'21.4.12~	4	기타	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	-																	
접종순위	대상자	접종(예상)시기																																				
1	의료종사자 선행접종	희망자 약 4만명	'21.2.17~																																			
2	의료종사자 우선접종	코로나19 환자와 빈번하게 접하는 의료종사자, 구급대원, 보건소직원 등 480만명	'21.3.1~																																			
3	고령자 우선접종	65세 이상 3천6백만명	'21.4.12~																																			
4	기타	기저질환자, 고령자 시설 직원 등을 우선하면서 일반인 포함	-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백신, 후생노동성이 승인할 경우 16세 이상 접종으로 검토 중( '21.1.10)</li> <li>○ 일본정부, 백신 접종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특별사이트와 공식 트위터 계정 개설( '21.1.22)</li> <li>○ 백신접종 체제 및 운영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예정(1.27)</li> <li>○ 의료종사자 대상 선행접종 개시( '21.2.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접종 의료 종사자 대상 2회 접종분을 포함한 필요량 공급(접종완료 7월말 전망)</li> </ul> </li> <li>○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접종 개시 예정( '21.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대상 2회 접종분을 포함한 필요량 공급 완료 전망( '21.6월 말)</li> </ul> </li> <li>○ 16세 이상 전체 접종대상자 접종분 확보 전망(~ '21.9월말)</li> <li>○ <b>현재 총 접종횟수 : 192,610,138회( '21.11.9 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오사카에 백신 접종 센터 개설 운영( '21.5.24~)</li> <li>* 15개 광역지자체 독자 접종센터 설치 운영 중</li> </ul> </li> <li>○ 64세 이하 일반접종, 지자체별·직장 및 대학 등 집단별 접종 개시( '21.6월 중)</li> <li>○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전국에 배포 시작, 긴급사태선언 지역 우선 배분( '21.8.16)</li> <li>○ 의료종사자 및 고령자 대상 3차 접종 추진( '21.12월~)</li> </ul>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백신 2.14일 첫 접종 준비, '머프롬'앱 등록 필수(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만 도스 도착, 의료진 우선 접종, 2.12일까지 머프롬 앱을 이용하여 사전 등록 필요</li> </ul> </li> <li>○ 2월말 시노백 백신 20만 도스 도입, 향후 순차적으로 타 백신 도착 예정('21.2.15)</li> <li>○ 시노백(20만), 아스트라제네카(11만7천) 백신 첫 출하 물량 총 31만 7천 회분 태국 도착('21.2.24)</li> <li>○ 정부, 중국과 아세안 거주 화교대상 백신접종센터 설립 협의('21.3.9)</li> <li>○ 태국산업연맹, 정부와 별개로 시노백 백신 10만 회분 주문('21.3.19)</li> <li>○ 태국산 코로나19 백신 "NDV+XP-S" 첫 임상시험 승인('21.3.22)</li> <li>○ 태국 식약청,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등록 승인('21.3.25)</li> <li>○ 정부, 민간병원 총 1천만 회분의 백신 자체 수입 허용('21.4.11)</li> <li>○ 일본 코로나 치료제 '아비간' 200만정 태국 도착( '21.4.26)</li> <li>○ 모더나, 태국 식약청에 백신 등록 신청( '21.4.29)</li> <li>○ 태국 내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월부터 공급 예정( '21.5.6)</li> <li>○ 시노백 백신 총 600만회 분 태국 도착( '21.5.20)</li> <li>○ 보건부, 태국 내 체류 중국인 대상으로 백신 접종 준비( '2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지역병원 등 의료시설 또는 라인, 머프롬 앱을 통한 예약접수 시작</li> </ul> </li> <li>○ 전국 76개 주, 6.14일부터 일반국민 대상 백신접종 예약 실시('21.5.30)</li> <li>○ 방콕시, 백신 부족으로 6.15 이후 예약된 백신 접종 연기 ('21.6.13)</li> <li>○ 시노팜 백신 100만회 분 도착, 접종 시작('21.6.25)</li> <li>○ 공중보건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 높이기 위해 교차 접종 승인('21.7.13)</li> <li>○ mRNA 백신(화이자) 접종 시작('21.8.5)</li> <li>○ 미국, 태국에 500만 달러 규모 코로나19 지원금과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 추가 지원 ('21.8.10)</li> <li>○ 태국 자체개발 ChulaCov19 백신, 3차 임상시험 개시('21.8.23)</li> <li>○ 올해 코로나19 백신 1억회분 접종목표 달성 가능 예상('21.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시노백 65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580만 회분, 화이자(미국 기증 분량) 150만 회분 및 시노팜 100만 회분)</li> <li>- 9월(시노백 6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최소 700만 회분, 화이자 200만 회분)</li> <li>- 10월(시노백 60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최소 700만 회분, 화이자 800만 회분)</li> <li>- 11월 및 12월(화이자 각 1,000만 회분)</li> </ul> </li> </ul>
이중동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인 장기 거주자는 백신 무료 접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분 '20.12월 말부터 접종, 21년 말까지 모든 사람 목표, 의료 종사자, 노인 및 취약계층 우선 접종</li> </ul> </li> <li>○ 정부,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3분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li> </ul> </li> <li>○ '21.1.27일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백신 접종 개시</li> <li>○ 보건부, 시민권자 영주권자 대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조기 접종 허용 계획('21.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상황 : 학업 및 업무, 중환자 돌봄, 해외진료 필요 등</li> </ul> </li> <li>○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자, 45~59세로 확대</li> <li>○ 45세 미만 싱가포르 거주자, 6월부터 백신 접종 예약 신청 시작 계획</li> <li>○ 보건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백신 종류 선택 가능 발표</li> <li>○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시기, 1차 접종 후 6-8주 후로 연기('21.5.21)</li> <li>○ 코로나19 백신 아시아 최초 전 국민의 50% 이상 1차 접종 완료('21.6.19)</li> <li>○ 6.18일부터 24개 시설 의료시설에서 시노백 백신 접종 가능</li> <li>○ 6.26일부터 백신 접종 가속화, 현재 일일 투여량에서 70% 증가한 일일 8만회 투여 계획</li> <li>○ 중국 시노팜 백신 유료 접종 실시 예정('21.7.28)</li> <li>○ '21.8.10일부터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대상 사전 예약 없이 백신 접종 가능</li> <li>○ 전 인구 대비 85% 2차 접종 완료 ('21.11.6)</li> </ul>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러시아-중국산 백신 1,830만 도즈 공급 계약 체결(1.26)</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월 의료진 등 50만명 1차 접종, 4~8월 고령자 고위험군 등 940만명 2차 접종, 5월~</li> </ul> </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22년 2월 18세 이상 성인 대상 3차 접종. 전국 600개 접종센터에 백신 보관소 설치 및 접종 ○ '21.2.26일부터 전국 600여개의 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시작 ○ 보건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분 도착('21.2.21), 2.24일부터 접종 개시 ○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도입 검토('21.4.16)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2차 신청 접수 개시('21.5.21) ○ 21년 8월 말~9월 초부터 사전예약 없이 백신 접종 실시 예정
	베트남	○ 나노젠(Nanogen) 제약사,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백스 임상시험 착수 *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2021년 5월 출시 계획 ○ '21.2월 말까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 490만 회분 확보 예정 ○ 베트남 첫 번째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1만 7,600회 분량 2월 24일 도착 ○ 3.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스푸트니크 V 백신 승인('21.3.23) ○ COVAX, UNICEF로부터 지원받는 170만 회분의 2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5.16. 도착 예정 -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1만 회분은 '21.4.1. 도착 ○ 총 1억 1천만회분 백신(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확보 발표('21.5.14) ○ 중국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 ('21.6.9) ○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 자체개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백스' 출시 임박('21.6.23) ○ 모더나 백신 사용 긴급 승인 ('21.6.29) ○ 미국 지원 모더나 백신 200만회분 하노이 도착 ('21.7.10) ○ 한국 10월 경 백신 100만회 분 지원(일자 미정) ○ 미국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바이오엔텍 150만개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지원('21.10.4) ○ 정부, 헝가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만개 구매 결정('21.10.7) ○ 12~17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승인('21.10.14) ○ 한국 포함 세계 각국에서 베트남에 코로나 백신 지원 - '21.10.13(수) 한국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도즈 도착 - '21.10.19(화) 헝가리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만 도즈 및 코로나19 진단키트 10만 도즈 지원
	캄보디아	○ 1,300만명(인구 대비 85.33%) 코로나 2차 예방접종 완료('21.10.23 기준)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2021년 백신접종 계획 - 의료진, 군/경, 법조인, 공공서비스 종사자('21.1~4), 취약계층 일반 국민 등('21.4~'22.3) ○ 자카르타주, 백신 접종 거부시 벌금 5백만 루피아 부과 ○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및 대상자 발표 - 1차 ('21.1월~4월) : 의료/보건 종사자 130만명 및 공무원 174만명 대상 접종 - 2차 : 18~59세 연령층 ○ 국내산 Merah Putih 백신. 3월경에 Biofarma를 통해 임상시험 진행 예정 ○ '21.2.17일부터 5월까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60세 이상 고령층 9백만명 대상 2차 백신 접종 실시 ○ 식약청(BPOM), 시노백 긴급사용승인(EUA) 발급('21.2.16) ○ 전국 10개소에서 고령층과 관공업종사자 위한 드라이브 스루 무료백신접종 시행 ○ 보건장관: 백신부족으로 4월 접종 지연 불가피('21.3.27) ○ '21.3.25 시노백 백신 1600만 도즈 확보, Covax 통해 확보한 AZ 포함 총 5760만 도즈 확보 ○ 민간주도백신접종(VGR), 5.18일부터 시행, 시노팜 백신 1,500만 도즈 확보('21.5.19) ○ '21.5.16부터 사용이 일시 중단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재허가 ('21.5.27) ○ 자기부담 개인 민간주도백신접종(VGR Individu) 가능하게 하는 개정된 보건 장관령 발표 ○ 백신 수급 현황 - '21.8.30(월) 시노백 원액 920만 도즈 도착 - '21.9.1(수) 아스트라제네카 583,400 도즈 도착 - '21.9.2(목) 화이자 1,195,740 도즈, 아스트라제네카 500,000 도즈 도착 - '21.9.4(토) 아스트라제네카 207,000 도즈 도착 - '21.10.13(수) 아스트라제네카 688,800 도즈 도착 - '21.10.14(목) 화이자 601,380 도즈, 아스트라제네카 672,600도즈 도착 - '21.10.17(일) 화이자 250만 도즈 도착 - '21.10.19(화) 일본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24,000 도즈 도착 - '21.10.20(수) 호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120만 도즈 및 일본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24,000 도즈 도착 - '21.10.21(목) 일본으로부터 화이자 1,210,950 도즈 및 아스트라제네카 698,090 도즈 도착 - '21.10.22(금) 일본으로부터 화이자 1,182,970 도즈 및 아스트라제네카 844,820 도즈 도착 - '21.10.25 (월) 아스트라제네카 684,000 도즈 도착 (99 도입) *뉴질랜드 - '21.10.26 (화) 시노백 100만 도즈 도착 (100 도입) *중국, 시노백 400만 도즈 도착 (101 도입) - '21.10.27 (수) 시노백 400만 도즈 도착 (102 도입) - '21.10.28 (목) 화이자 677,430 도즈 도착 (103 도입), 시노백 400만 도즈 도착 (104 도입) - '21.10.29 (금) 화이자 1,263,600 도즈 도착 (105 도입), 아스트라제네카 1,336,200 도즈 도착 (106 도입), 시노백 400만 도즈 도착 (107도입) - '21.10.30 (토) 모더나 819,600 도즈 도착 (108 도입) *네덜란드 - '21.10.31 (일) 화이자 358,020 도즈 도착 (109 도입) ○ 보건부, 내년 초 5~11세 아동 대상으로 백신 3종(시노백, 시노팜, 화이자) 접종 목표('21.10.27) ○ 정부, 백신접종기술지원위(ITAGI)와 2022년 부스터샷 접종 관련 검토 중('21.10.28) - ① 의료계 종사자, ②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 ③ HIV 또는 암 환자 등 면역이 약한 국민 들을 우선으로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예정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방정부·제약회사 간 3차 협약 승인, 7개 제약회사와 계약 예정, 올해 5~7천만명분 접종 예상</li> <li>○ '20년 11월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0만회분, '21년 5월 도착 예정</li> <li>○ 정부, 코백스 등 해외 여러 코로나19 백신 공급업체로부터 1억7천만회 분량 확보 완료, 올해 성인 약 7천만명 접종 가능</li> <li>○ '21.2.28일 필리핀에 첫 코로나 백신 도착 (중국 정부가 기증한 시노백 백신 60만회 분), 3.1일부터 25만 명의 의료진 및 5만 명의 군인 우선 접종 시작</li> <li>○ 코백스 제공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8만7천회 분. 3.4일 필리핀 도착</li> <li>○ 정부, 올 연말까지 전국민의 70% 백신접종 완료 계획</li> <li>○ 중국 추가 기증 시노백 백신 40만회분 도착, 수도권, 세부, 다비오지역 우선배당 예정('21.3.24)</li> <li>○ 총 3백만회 분의 시노백 및 52만회 분의 아스트라제네카 필리핀 도착('21.4.22)</li> <li>○ 화이자 백신 4천만회분 계약 체결 8월 인도 예정, 6월말 현재 총 1억1,300만회 접종분 확보</li> <li>* 화이자 4천만회분 시노백 26백만회분, 스푸트니크 1천만회분, 모더나 2천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17백만회분</li> <li>○ 21.11.6일 기준 백신접종현황 - 1차 34,402,150명(인구 대비 31.3%), 2차 29,331,626명(인구 대비 26.7%)</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3일부터 인도 내 백신 접종 시작 예정, 올해 8월까지 3억 명 접종 계획</li> <li>○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인도 최초 긴급사용 승인, '21.1.16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li> <li>○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세로 18세 이상(7천 45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토록 정책 변경('21.4.26)</li> <li>○ 인도산 '코백신', 2~18세 대상 임상 2·3상 돌입</li> <li>* 어린이·청소년 대상 접종이 집단면역 필수조건으로 판단, 성인 접종 조건으로 긴급 승인된 '코백신'에 대한 18세 이하 추가 임상 돌입</li> </ul>
	U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 보건 당국, 시노팜(중국 국영 제약사) 백신 공식 등록('20.12.9) - UAE에서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실시('20.7월) 및 긴급사용 승인('20.9월)</li> <li>- UAE 국민/거주자 중 우선 접종 대상자 백신 무료 접종 시작('20.12.12~)</li> <li>* 우선 접종 대상자 : 임상 3상 시험 참여자, 의료진, 공항 근무자, 교사 등</li> <li>○ UAE 아부다비,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 시작('20.12.7)</li> <li>○ 두바이 보건 당국,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긴급 등록 및 두바이 국민/거주자 대상 무료 접종 시작('21.12.23~)</li> <li>○ UAE 보건 당국,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등록('21.1.21)</li> <li>○ UAE 보건 당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등록('21.2.2)</li> <li>○ 16세 이상 모든 UAE 거주자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21.3.21~)</li> <li>- '20.12월부터 6주간은 취약계층(노인, 기저질환자 등), 의료업계 종사자 대상 우선 접종</li> <li>○ UAE G42* 그룹 및 중국 CNBG(시노팜), UAE 내 백신 생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출범('21.3.28) * G42 : UAE 아부다비에서 2018년 설립된 인공 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li> <li>○ 두바이 보건 당국(DHA),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 확대('21.4.17) - 모유 수유 중 혹은 임신 계획 중인 여성, 코로나19 확진자 중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 격리 해제 즉시 접종 가능</li> <li>○ 아부다비 보건 당국,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 승인('21.4.21)</li> <li>○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연령 확대 : 16세 이상→12세 이상('21.5.14~)</li> <li>○ 두바이 보건 당국(DHA), 임신부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용('21.6.29~)</li> <li>○ UAE 보건 당국, 모더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 및 등록('21.7.4)</li> <li>○ 보건당국,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권고('21.7.7)</li> <li>○ 아부다비 거주 3~17세 어린이·청소년 및 노인, 예약 없이 백신 접종 가능 - 부스터 샷의 경우 아부다비 전 거주자 예약 없이 접종 가능</li> <li>○ 아부다비 거주자, 왓츠앱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약 가능('21.8.21~)</li> <li>○ 두바이보건당국(DHA), 만성질환자 대상 백신 부스터샷 접종 권고('21.9.1)</li> <li>○ 보건당국, 자국민·거주자 대상 부스터샷 접종 촉구('21.10.26)</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가능 연령 확대 : 12세 이상→5세 이상('21.10.31~)</li> </ul>
	사우디아라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단계별 접종시작('20.12.15) - (1단계) 65세 이상 국민/거주자, 감염에 취약한 인력(의료진 등), 만성 질환자 등</li> <li>- (2단계) 50세 이상 국민/거주자, 보건의로 일반 종사자 등</li> <li>- (3단계)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국민/거주자</li> <li>○ 보건당국, 모더나 백신 사용 승인('21.7.9)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존슨&amp;존슨에 이어 4번째 승인</li> </ul>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슨&amp;존슨 백신 사용 승인('21.6.8)</li> <li>- 현재 쿠웨이트 내 접종가능 백신 :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amp;존슨</li> </ul>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확보현황, 접종 계획 발표('20.12.14) - 터키 당국은 현재 16개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 중이며, 이중 가장 빠른 것은 1개 제약회사가 임상 1상 완료 후 2상 진행 예정('20.12.25)</li> <li>- 터키 국민 2,500만 명 총 2회 접종 가능한 약 5,000만 회분의 백신 확보 완료(시노백)</li> <li>- 12월 25일 첫 접종시작, 2~3주간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 예정</li> <li>- 접종 대상 5개 그룹으로 분할하며, 의료종사자, 65세 이상부터 접종 시작</li> <li>- 모든 접종비는 정부 부담으로 무료 배포</li> <li>○ 시노백 백신 긴급사용 승인 완료('21.1.13), 의료계 종사자 등 접종그룹 우선순위에 의거 접종 시작('21.1.14)</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OV Mobile 앱, 전자서류 부문에서 카자흐어(Қазақша), 러시아어, 영어) 백신 접종 확인서 조회 가능</li> <li>○ 보건부, 4.26일부터 카자흐스탄 자체 개발 QazVac 백신 접종 시작</li> <li>○ 4월말 Sinopharm 백신 40만 도스 공급 완료, 5월 중 60만 도스 공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을 구매한 Samruk Qazyna 국가펀드 직원에게 25만도스 접종 시행, 카자흐 국민에게 나머지 75만 도스 접종 시행 예정</li> </ul> </li> <li>○ 스푸트니크V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 간격을 21일에서 최대 90일로 연장, 단, 21일 이후 접종 시행하고자 하는 자 대상으로 백신 접종 가능</li> <li>○ 중국 자체 개발 시노팜 바이오테크 백신 500,000도스 공급('2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카자흐스탄 개발 QazVac, 러시아 개발 Sputnik V, 이밖 중국 개발 Hayat-Vax 백신 접종 가능. 미국 화이자 백신은 등록되었으나 아직 미공급</li> </ul> </li> <li>○ 자체개발 2번째 백신인 Qazcovac-P, 임상 전 단계 통과.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발표, 곧 첫 번째 백신인 Qazvac 임상시험 상세 내용 발표 예정</li> <li>○ 보건부, 화이자 백신 공급에 대한 잠정 합의 : 2021 4분기 공급 예정이(' 21.7.15)</li> <li>○ 보건부, 러시아 백신 'Sputnik Light' 임시 등록 증명서 발급 (' 21.7.12)</li> <li>○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협상 재개 (' 21.7.16)</li> <li>○ 중국 시노팜 백신(1백만 도스) 카자흐스탄 도착 ('21.8.10)</li> <li>○ 보건부, 10월중 공급 될 화이자 백신은 먼저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만 제공('21.8.10)</li> <li>○ 보건부, 카자흐스탄 내 백신 재접종 계획 관련 협의 중('21.8.10)</li> <li>○ 카자흐스탄 백신 QazVac, 키르기스스탄에서 최초로 공식 등록 ('21.8.19)</li> <li>○ 총리주재정부회의, 서카자흐스탄주 등 4개 지역에서 예방 접종 속도 증가 지시('21.8.18)</li> <li>○ 카자흐스탄 자체 생산 백신 QazVac, 3차 임상 실험 완료. 연말까지 200만 도스의 백신 생산 예정 ('21.8.27)</li> <li>○ 중국 VeroCell 백신 3백만 도스 카자흐스탄 도착</li> <li>○ 카자흐스탄 생물안전문제과학연구소의 연구 결과, 카자흐스탄 자체 개발 백신인 QazVac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력 보도('21.9.24)</li> <li>○ '20.10.11일 기준, 카자흐스탄 승인 백신 5종 : Sputnik V, Qaz Vac, Hayat-Vax, Comona Vac, Sinopharm</li> <li>○ '21.10월 중 코백스 프로그램을 통해 화이자 백신 25.9만 회분, 시노팜 11만회 분, 아스트라제네카 5만회 분 수령 예정</li> <li>○ '21.11.30일부 대국민 부스터 샷 시행 예정 발표('21.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종사자, 교사, 법 집행기관 종사자 등 위험집단과 60세 이상 고령자 중 항체 검사결과 음성인 대상을 우선 실시. 외국 선례를 참고하여 대국민으로 확대 시행 예정</li> </ul> </li> <li>○ '21.10.25 기준 백신 접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8,168,114명(인구 대비 45.37%), 2차 7,329,137명(인구 대비 40.00%)</li> </ul> </li> <li>○ 보건부 차관, 12~18세 청소년, 임산부, 수유부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계획 발표 ('21.11.5)</li> <li>○ 21.11.8일 기준, 1,031명 확진. 총 누적 감염자 949,630명</li> <li>○ 알마티시, '21.11.21~11.30일 경 코로나19 백신(스푸트니크V, QazVac, Vero Cell) 재접종 실시 예정</li> </ul>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위 국가, 백신증명서 발급 계획 발표</li> <li>○ 백신접종 시작('20.12.19) 이후 1.24일 기준 현재 인구 100명당 41.8회 백신 투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층과 고위험군에 속한 그룹 대상 우선 접종 시작, 접종 후순위에 해당하는 그룹도 본인 희망 시 접종 가능, 정상적 학사 일정 운영과 대학입학 시험 일정으로 부모 동의하에 16~18세 그룹도 접종 시작</li> </ul> </li> <li>○ 백신 2회차 접종자 대상으로 백신 증명서 'Green Booklet' 발급</li> <li>○ 이스라엘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필수, 도착 후 의무자기격리 필수해외 백신접종 확인서 인정 안함) 및 혈청검사 결과에 따라 차가 의무격리 면제 신청 가능</li> </ul>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188,940회분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예정</li> <li>○ 중국에서 지원한 30만 회분 시노팜 백신 도착('21.2.23)</li> <li>○ COVAX 프로그램 25,740회분의 화이자 백신 도착('21.03.24)</li> <li>○ '21.4.5일부터 만 18~49세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21.4.3)</li> <li>○ 4.21일에 50,400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착('21.4.22)</li> <li>○ 중국에서 30만 회분의 시노팜 백신 도착('21.4.24)</li> <li>○ 몽골에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21.5.1)</li> <li>○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6.14일부터 임산부 및 16~17세 청소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21.6.14)</li> <li>○ 일본에서 무상원조로 84,240회분의 화이자 도착('21.6.16)</li> <li>○ 보건부, 6.28일부터 12~15세 청소년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실시</li> <li>○ 8월부터 코로나19 3차 접종 시작 관련 논의 중 ('21.7.7)</li> <li>○ 2만 회분의 Sputnik V 백신 도착( '21.7.14)</li> <li>○ 12-17세 55,780명의 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 '21.7.19)</li> <li>○ UNICEF을 통해 일본에서 지원하는 155,610회분의 화이자 백신 도착( '21.8.6)</li> <li>○ COVAX 프로그램으로 117,000회분의 화이자 백신 추가 도착('21.8.13)</li> <li>○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차 접종 시작( '21.8.26)</li> <li>○ 5-11세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조사 중(11.2)</li> <li>○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율 65.8% (' 21.11.8)</li> <li>○ 총 445,979명(14%)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예방 접종 완료( '21.11.8)</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미국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델타항공,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운송 체계 구축 완료</li> <li>-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내 위치한 대규모 물류창고 및 냉각시설과 의약품 수송관련 인증을 받은 세계 45곳 공항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세계 각지에 코로나19 백신을 운송하기 위한 준비 완료</li> <li>- KLM Martinair Cargo, Virgin Atlantic Cargo와 협력</li> <li>○ FDA, 12.18 모더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li> <li>- 모더나 백신, 3만 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2차 접종 시 94.1% 예방 효과 기록</li> <li>○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원인 연구</li> <li>○ 시우스웨스트 항공, 전 직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li> <li>- 백신은 연방정부 지원, 접종 비용은 직원들의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 항공사 부담 예정</li> <li>○ 캘리포니아주, 3.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li> <li>- 암, 만성 신장·폐질환 등 기저질환 및 다운증후군 등 장애인 접종 가능(16-64세)</li> <li>○ 화이자 백신,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항체 보호 효과 3분의 2까지 떨어질 수 있음(2.17)</li> <li>○ 화이자, 임산부 대상으로 백신 안정성 입증 위한 임상시험 실시(2.17)</li> <li>○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파우치소장, 올 7월 말 모든 국민 접종 분량 확보 예상(2.18)</li> <li>○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효과가 8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 발표. 3주 후 2차 접종을 할 경우 효과가 95%로 나타남(2.19)</li> <li>○ FDA,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만장일치로 긴급사용 승인 권고</li> <li>○ 바이든 대통령, 5월 말까지 전국민 백신 접종 완료 계획 발표(3.2)</li> <li>○ 5월 말까지 존슨앤드존슨 백신 1억회분 추가 확보. 모더나/화이자 백신 각각 2억회분 확보 예정</li> <li>○ 유나이티드·아메리칸 항공, 이르면 3.11일부터 직원들에게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li> <li>○ 청소년용 코로나 백신 올 가을, 어린이용(5-12세) 내년 1분기 개발 예정</li> <li>○ FD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2-15세 긴급사용 승인( '21.5.13일부터 접종 시작)</li> <li>○ 캘리포니아주, 4.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16세 이상 모든 주민으로 확대</li> <li>○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 해제 (단, 화귀 혈전 위험성 문구 백신 리벨에 추가)</li> <li>○ 알래스카주, 관광수요 촉진을 위해 관광객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li> <li>○ LA, 4.13일부터 16세 이상 모든 시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허용</li> <li>○ 코로나19 백신 예약 없이 약국 방문하여 접종 가능</li> <li>○ FD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정식 승인( '21.8.23)</li> <li>○ 미정부,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 완료자 대상 부스터샷 접종 계획 발표( '21.9.20)</li> <li>○ 연방 공무원 및 100인 이상 기업에 75일 내 백신 접종 의무 발표(9.9)</li> <li>○ 미 정부, 화이자 접종 완료자 중 일부 대상자(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부스터샷 접종 개시( '21.9.24)</li> <li>○ 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65.8%(218백만 명, '21.10.16. 기준)</li> <li>○ FDA 자문위원단, 백신 3개종(화이자, 모더나, 안센) 모두에 부스터샷 권고 ( '21.10.14)</li> <li>- 화이자 모더나의 추가 접종 대상자가 2차 접종 후 6개월 이상 경과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제한적인 것에 반해, 안센은 접종 후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한 권고안이 내려짐</li> <li>- 화이자는 지난 9월 추가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안센과 모더나의 추가접종은 FDA와 CDC 의 최종승인을 거친 후 11월 중 개시될 것으로 전망</li> <li>○ FDA, 모더나( '21.10.20 · 안센( '21.10.21)의 부스터샷 및 교차 접종 승인</li> <li>- 안센은 18세 이상 성인에만 접종 허용</li> <li>○ 미 정부, 화이자·모더나 접종완료자 중 일부대상자(고령자, 취약계층 등) 및 안센 접종 완료 성인 모두에 대한 부스터 샷 접종 개시( '21.10.22)</li> <li>○ 뉴욕시, '21.11월부터 모든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li> <li>- 11.1일부로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급 휴직을 해야함</li> <li>- 동 조치로 현재 70% 대에 불과한 뉴욕시 공무원들의 1차 이상 백신 접종률을 크게 상향시킬 것으로 기대</li> <li>○ 백악관, 5-11세 어린이 대상 백신 접종 계획 발표</li> <li>- 미국 어린이 확진자 수가 미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14.8% 기록함에 따라,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을 추진 중임</li> <li>- FDA 자문단은 '21.10.26일 어린이용 백신 승인 문제를 논의 할 예정이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월 초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함</li> <li>○ 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67.0%(222백만 명, '21.11.9 기준)</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부, 세계 두 번째 화이자 백신 캐나다 내 사용 승인('20.12.9)</li> <li>- 연내 24만9천회 분 도착 예정, 도착 1-2일내 14개 지역서 무료접종 시작</li> <li>- 21년 9월까지 캐나다국민 전국민 접종 완료 계획(유학생 등 외국인 포함)</li> <li>○ 백신(화이자)접종 개시(20.12.14)</li> <li>○ 보건부, 모더나(Moderna) 백신 승인('20.12.23), 연내 168천회분 도착</li> <li>○ 화이자 백신제조시설 확장계획으로 당분간 캐나다로의 백신 공급 지연 예정</li> <li>○ 연내 2000만 회분 화이자 백신 추가 구매 동의(총 8천만 회분)</li> <li>○ 보건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2.27)</li> <li>* 노바백스(4월0진) 백신 승인 예정</li> <li>* 백신수급 사태를 계기로 노바백스 백신 캐나다 국내 생산하기로 동사와 MO체결 발표</li> <li>* 단,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li> <li>○ 보건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이어 4번째. 존슨앤드존슨(안센) 백신 승인(3.5)</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 회분 선구매, 2800백만 회분 추가구매 가능하며 2분기 공급 시작 예정</li> <li>○ 캐나다, 6월말까지 16세이상 전 인구 코로나백신접종 완료 계획 발표(3.18)</li> <li>○ 캐나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NACI: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55세 미만 연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발표(3.29), 30세 이상자로 접종가능 연령 범위 확대(4.23) * 대부분 주는 40세, 퀘벡은 45세, BC주 30세 이상 대상</li> <li>○ 캐나다, 미국으로부터 AZ(아스트라제네카)백신 150만 회분 수령(3.30)</li> <li>○ (21.4.25 기준) 캐나다 백신접종 29.0%(1회 이상 접종 인구), 접종분량 12,045,041회분, 공급물량 13,700,694회분</li> <li>○ 존슨앤존슨 백신 30만 회분 첫 수령( '21.4.28), 화이자 100만, 모더나 65만 회분 금주 수령</li> <li>○ 세계 최초 화이자 백신 12-15세 대상 사용 승인( '2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22부터 온타리오주 12세-17세 화이자백신 접종 예약 시작</li> </ul> </li> <li>○ 캐나다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부작용 사망자 3명 발생( '21.5.4 기준)</li> <li>○ 온타리오주, 모든 성인 5.23일까지 백신접종 예약 가능 및 5월 말까지 성인인구의 65%가 1차 접종 완료 예정</li> <li>○ 보건부, '21.5.4일 12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 후 온타리오주는 6월부터 12-17세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 계획. 일부 지역은 5.11일부터 사전예약 시작</li> <li>○ (21.11.5 기준 백신접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29,828,466명(전국민 대비 78.0%) / 화이자, 모더나, AZ</li> <li>- (2차) 28,410,636명(전국민 대비 74.3%) / 화이자, 모더나, AZ</li> </ul> </li> <li>○ 퀘벡 백신여권 도입(2021.9.1.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필수서비스(술집, 체육시설, 식당 등)에 사용, 필수서비스는 미 적용</li> </ul> </li> <li>○ 캐나다, 모든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 산하 공공부문 종사자 및 항공·기차·선박 여행자 백신접종 의무화 발표(21.8.13 발표, 9월 중 시작 및 10월 말 접종 완료 계획)</li> <li>○ 특도 총리, 캐나다 국민 부스터샷 접종을 위한 백신(화이자, 모더나) 확보 계획 발표(21.8.19)</li> <li>○ 캐나다 보건부, 12세-17세 청소년 모더나 백신 접종 허용( '21.8.27)</li> <li>* 캐나다 내 화이자백신의 12세-15세 청소년 접종 승인은 2020.5월, 16세 이상 승인은 2020.12월</li> <li>○ 백신여권도입 : 퀘벡(21.9.1), 매니토바(21.9.3), 온타리오(21.9.22), 브리티시컬럼비아(21.9.13), PEI( '21.10.5) * 연방정부 : 21년 가을 도입 예정</li> <li>○ 화이자, 캐나다 보건부에 이동용(5-11세) 코로나 백신 사용 신청( '21.10.18)</li> <li>○ 캐나다국립접종위원회(NACI), 코로나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 확대 발표(21.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원관련자, 80세 이상, 70-79세 이상자 특히 AZ 2회 혹은 안센 접종자, 의료관계자</li> </ul> </li> </ul>
대양주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내 백신접종 진행상황(전국 접종대상 인구수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종 대상자 연령 : 12세 이상</li> <li>- 호주식약청,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 접종 승인</li> <li>- '21.11.7일 기준 1차 접종인원 약 18,431,249명(89.39%), 2차 접종인원 약 16,628,469명(80.64%)</li> <li>※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만 2차 접종인원자료를 발표하고 있어, 실제 2차 접종인원은 더 많고, 1차 접종인원은 더 적은 것으로 추정됨</li> </ul> </li> <li>○ 호주 백신접종 계획 및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대상 그룹을 1a, 1b, 2a, 2b, 3의 총 5개 단계로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접종 확대.</li> <li>- 백신 접종은 무료이며, 정부 권고사항임(의무 접종 아님)</li> <li>- 병원 및 약국을 통해 접종 예약가능하며, 대부분 운전 면허증만 제시하면 접종 가능</li> <li>- 접종처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쇄가능형태로 이메일로 발송, 웹/앱 확인 가능</li> <li>- 호주 정부 면역 등록(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시스템을 통해 백신 예방 접종을 처방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누적</li> </ul> </li> </ul>
구주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 파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 이후 알레르기 반응 보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접종 하루 만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자, 영국 NHS는 과거 약품, 음식, 백신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당분간 백신접종 중단 권고</li> </ul> </li> <li>○ 임신부는 백신 접종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롭다는 증거는 없으나 임신부대상 임상실험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임.</li> </ul> </li> <li>○ 최고 의료책임자, 새로운 변종이 백신이나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현재 없다고 발표</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두 번째 접종 완료 7일 경과 후 면역력 생성</li> <li>○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 세계 최초 승인( '20.12.30) 및 1.4일 접종 시작</li> <li>○ 백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접종 전날 저녁 알코올 섭취 금지 권고(면역학 전문가)</li> <li>○ '21.1.15일부터 일일 수십만명 이상으로 백신접종 확대 계획 발표</li> <li>○ 모더나 백신 사용승인( '21.1.8)</li> <li>○ <b>접종자 50,234,416명(1차), 45,836,791명(2차)( '21.11.6 기준)</b></li> <li>○ 모더나 백신 영국발 및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 있는 것으로 발표</li> <li>○ 7월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성인 백신 접종 완료예정(1차 접종 기준)</li> <li>○ 영국 성인의 절반 이상, 1차 접종 완료 및 일일 접종자 수 최고치 기록(66만명, '21.3.19)</li> <li>○ 4월 중순까지 목표대로 9개 우선순위 접종자 대상자 접종 완료 예정(의료종사자, 50대 이상 등 3,180만 명)</li> <li>○ 영국에서 세 번째로 사용 승인된 모더나 백신 접종 시작( '21.4.7)</li> <li>○ 안센 백신 영국에서 네 번째로 사용승인( '21.5.28)</li> <li>○ 화이자 백신 12-15세 청소년 대상 사용승인( '21.6.4) 및 접종 시작( '21.9월)</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세 이상 및 기저질환자 대상 부스터샷 접종, 예상보다 저조</li> <li>- 부스터샷 접종 대상인 850만 명 중 370만 명만이 접종 완료</li> <li>○ 보건당국 산하 백신위원회, 백신 우선 접종 권고 초안 마련 및 관계 기관에 배포</li> <li>- 첫 번째 그룹 : 80세 이상 고령자, 양로원 혹은 요양원 거주자, 응급실 등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진, 위험 그룹과 접촉이 빈번한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우선 접종 대상 * 우선 접종 대상 규모 : 860만명</li> <li>* 우선 접종 대상 중 65세 미만은 연령에 제한된 백신(예: 아스트라제네카)으로 접종 규정 (제 2조 2항, 3조 2항, 4조 3항)</li> <li>- 두 번째 그룹: 76-80세 고령자, 치매환자 돌봄시설 거주자 및 의료진, 돌봄시설 의료진, 간병인 등 및 임환자, 중증 당뇨 환자, 만성 신장질환 환자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li> <li>- 세 번째 그룹 : 71세~75세 고령자, 망명 및 노숙자 보호소 거주자, 의료시설, 특히 병원 인프라 유지를 위한 관련 직위 (예 : 클리닉 및 관행의 청소 직원 또는 병원 기술 직원) 및 공중 보건 서비스에 고용 된 직원에 노출 위험이 중간 정도인 직원(접종규모 약 550만명)</li> <li>- 네 번째 그룹 : 66세-70세 고령자, 중등도 질병환자 접촉자, 교사 및 교육자, 계절 근로자, 육가공 근로자, 택배업 및 유통업자 등, (접종규모 약 690만명)</li> <li>- 다섯 번째 그룹 : 60세-65세 고령자, 소매업, 주 및 연방 정부 주요직원, 중요 인프라 직원(소방대, 군대, 경찰, 대중 교통 또는 폐기물 관리) (접종규모 약 9백만명)</li> <li>○ 개봉한 백신앰플의 유효기간 만료 전 개별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유동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제1조 3항)</li> <li>○ 교사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2.24 개시</li> <li>○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희망 시 우선순위나 나이 제한 없이 접종 가능</li> <li>○ '21.5.22일부터 안센(Johnson &amp; Johnson) 백신 접종 시행</li> <li>○ '21.6.7일부터 백신 접종 우선순위 해제, 성인 누구나 접종 가능</li> <li>○ 6.7일부터 12세 이상 아동 및 모든 성인은 백신 접종센터와 가정의를 통해서 예약 및 접종 가능</li> <li>○ 1차 접종 58백만 명(전국민 대비 69.7%), 2차 접종 55.8백만 명(전국민 대비 67.1%), ( '21.11.7일 기준)</li> <li>○ 슈판 보건장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접종 허용 요청</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고령층 등 취약집단부터 우선 접종</li> <li>- (1월~) 요양시설 거주 고령자, 직원 등 100만 명 대상 우선 제공</li> <li>- (2월~) 코로나19 취약 만성질환 환자, 의료진을 중심으로 1,400만 명 대상 제공</li> <li>- (4월~6월) 전 국민 대상 확대</li> <li>* 의무 접종이 아닌 선택이며, 프랑스 인구보다 많은 1억 명 기용 백신 2억 회분 확보(인당 2회 접종)</li> <li>* 무료 제공으로, 사회보장예산 약 1조 9천억 원 책정</li> <li>○ 코로나19에 취약한 50~64세 국민 대상 백신 접종 캠페인 시작</li> <li>○ 3.20 기준, 613만 명(프랑스인의 10%) 1차 접종 완료, 이 중 절반은 2차 접종까지 완료. 4월 중순까지 3천만 명, 5월 중순까지 2천만 명, 올 여름까지 3천만 명(프랑스인의 50%) 접종 목표</li> <li>○ 화이자-바이오엔테크, 3월 말까지 1년에 4백만 회 분 추가 백신 제공 예정</li> <li>○ 3.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개. 단, 55세 이상에게만 권고</li> <li>○ 유럽연합(EU), 코로나19 백신 접종 7.14일까지 집단면역 달성 목표, EU-제약사 간 계약한 물량 확보 전까지는 역대 생산 백신 수출제한 등 규정 강화</li> <li>○ 유럽연합, 아스트라제네카 공급 계약 종료(6월) 이후 추가 계약 계획 없음. 화이자와는 2022-23년 기용 백신(18억 회 분) 계약 체결</li> <li>○ '21.11.7일 기준 백신접종현황</li> <li>- (1차) 51,380,109명(전국민 대비 76.2%)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안센</li> <li>- (2차) 50,245,830명(전국민 대비 74.5%)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안센</li> <li>* (8.24~) 65세 이상 기저질환 보유자 및 면역 취약계층 대상 3차 백신 접종 권장</li> <li>* 단, 아스트라제네카는 만 55세 이상에게만 접종 권고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55세 미만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교차 접종)</li> <li>* 5.31일부터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 확대</li> <li>* 1차 백신 접종 후 2차 백신 접종 간격 최대 49일까지 연장 발표(6.15)</li> <li>○ '21.5.10일부터 만 50세 이상 백신 접종 시작, 5.31일부터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 확대 (단, '21.5.12일부터는 5.31일 전이라도 여분의 백신이 있을 경우 연령제한 없이 하루 전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 및 접종 가능)</li> <li>○ '21.6.15일부터 12~18세 청소년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 확대</li> <li>○ 1차 백신 접종 후 2차 백신 접종 간격 최대 49일까지 연장 발표( '21.6.15)</li> <li>○ 9월부터 80세 이상 고령 면역 취약계층 대상 3차 백신 접종 시작</li> <li>○ 특수직업 종사자(보건, 복지, 경찰, 군인 대중교통, 의료계 등)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21.9.15)</li> </ul>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li> <li>- 등록백신 : 2종(Sputnik V, EpiVacCorona)</li> <li>- Sputnik V 생산계획국가 : 헝가리, 인도, 한국, 브라질, 중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li> <li>○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Sputnik V) 접종 개시(12.4~)</li> <li>- 우선접종대상 : 의료진, 교사, 공공서비스 분야 근로자 / 18-60세</li> <li>- 백신생산량 : 232,000 도즈(~2020.12), 6백만 도즈 / 월(2021.1~)</li> <li>- 기타 : Sputnik V 효능 91.4%, Sputnik V 접종 유효기간 2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결합 접종 실험</li> <li>○ 러시아 개발 코로나19 백신(Sputnik V) 접종자 150만명 돌파</li> </ul>

지역	국가명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스크바, 1.13일부터 호텔 및 여행사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 시작 예정</li> <li>○ 러시아 백신 '에피박코로나' 60세 이상 고령 대상 3단계 임상시험 완료(접종효과 지속 기간 1년) 및 3월부터 대량 생산 시작</li> <li>○ 모스크바 시민 백신 접종자 약 1백만명 달성</li> <li>○ 러시아 군대, 40만명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li> <li>○ 푸틴 대통령, 자국의 백신으로만 21년 8월까지 60%의 러시아인 접종 완료를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700만회, 2월 1,100만회, 3월 1,500만회 백신 생산 예정이며 8월까지 총 7천만회 접종 예정</li> </ul> </li> <li>○ 러시아 첫 번째 백신 스푸트닉 V 판매 가격 인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기준 스푸트닉 V 백신 약 1,100만명 접종 완료, 현재 러시아인 대상 무료 제공</li> <li>* 스푸트닉 V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다만 최근 국내외 수요가 상승함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은 현재 접종이 중단된 상태임</li> </ul> </li> <li>○ 모스크바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을 받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000루블 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 실시</li> <li>○ 중국 백신 Convidetsiya, 러시아 내 백신 등록 대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임상시험에서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 러시아 연방 보건부에 최종 결과 제출 후 등록 여부 결정 예정</li> </ul> </li> <li>○ '21.11.8일 기준 백신접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58,055,802명(전국민 대비 39.70%) / Sputnik V, EpiVacCorona, Covivac</li> <li>- (2차) 49,631,531명(전국민 대비 34.00%) / Sputnik V, EpiVacCorona, Covivac</li> </ul> </li> </ul>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 등 제약사와 백신 계약 체결. 화이자 백신 승인에 따라 90세 이상 시민부터 접종 개시</li> </ul>